

### ■ 940812 #Necessary Condition

다음 중, 문장의 내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법이 있어야 안전한 사회생활이 보장되므로 법은 필요하다.
- ② 법이 없으면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은 존재해야 한다.

### ■ 941128 #Necessary Condition

㉠사실성과 기록성은 풍속화의 일차적인 요건이며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진실된 풍속화라고 보기 어렵다.

### ■ 940827~30 #Contradiction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요인과 비가격 요인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구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가격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가격 이외에 판매점, 상표, 디자인, 신속한 배달과 수리, 광고 등과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 ■ 940837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② 미는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X)

→ 예술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예술'과 '미(美)'를 동일시하는 우리들의 선입관에서 기인한다.

### ■ 940843 #Warning

㉠~㉣ 중, 복지국가론자들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복지국가론자가 주장하는 평등은 ㉠완전한 평등, 즉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득을 보장받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 ■ 940857 #Quotation

㉣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 양자역학에 의하면 물리적 현상은 인과율에 따른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만 확률적 예측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은 세기적인 대논쟁을 벌였다. 그 때 아인슈타인은 자연은 아름다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의 머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 ■ 940856~60 #Reductionism

지금까지 과학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모든 존재를 기계와 같은 물질 구조로 보고, 환원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기계의 최소 부품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밝혀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신과학 운동에서는 전체가 단순한 부분의 합계 이상이라고 믿고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분석이나 환원적 접근법 대신에 전체를 파악하는 전일적(全一的)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Mini Knowledge** 환원적: 전체=Σ부분

## ■ 941122 #Necessary Condition

⑤ 미적 기능과 연관되지 않은 사회적 기능은 예술의 기능이라 할 수 없다.

➡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정치나 도덕과 같은 다른 문화적 사상과 구별하는 것은

③예술의 사회적 기능은 예술의 미적 기능과 항상 결부되어 있는 까닭이다.

## ■ 941145 #Influencer

③와 같은 인과적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은?

정부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비하여 행동을 하고, 반대로 경기 회복을 예고하면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③경기 예측 그 자체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측이 어느 정도 빗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될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은 이른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소지가 크다.

① 기술의 혁신은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고, 그것은 다시 오염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

② 큰 목소리가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하고, 그것은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

③ 실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의해 보일러가 꺼지고, 온도는 다시 내려간다.

④ 할아버지는 손자가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늘 말하였고, 그 말에 용기백배한 손자는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⑤ 풀어진 신발 끈을 다시 묶느라 집을 약간 늦게 출발하였고, 그래서 그는 기차를 놓쳤고, 그래서 그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그 결과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 ■ 941146 #DLB #=&≠ #Necessary Condition

④ 연극은 관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 구별된다.

➡ 관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모든 예술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극은 언제나 배우와 관객의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대면을 통해서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그 독자성을 지닌다.

## One Point Lesson | 필요조건, 충분조건 한국어 번역 관행

### 1. 수학시간에 배운 것

□: 충분조건, △: 필요조건

$$\square \rightarrow \triangle \equiv \sim \triangle \rightarrow \sim \square$$

### 2. 수학시간에 배웠는데 깜빡한 것

$\square \rightarrow \triangle \equiv \square \subset \triangle$	
$\square = \emptyset \triangle \neq \emptyset$	$\square = \emptyset \triangle = \emptyset$

### 3. 수학시간에 안 배우는 것 (명제논리학 표현법)

□: 충분조건, △: 필요조건

□이면 △이다. □이기만 하면 △이다.	□이면 △임이 보장된다.
□일 때 △이다.	(오직) △일 때만 □이다/일 수 있다.
□인 경우에 △이다.	(오직) △일 경우에만 □이다/일 수 있다.
□인 한 △이다.	□는 △에 한한다/한정한다/국한한다. △에 국한하여/한(정)하여/제한하여 □이다.
□이기 위해서/위하여 △이어야(만) 한다. □이려면/하려면 △이어야/해야(만) 한다.	△는 □이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는 △이기 위해 충분한 조건이다.	△는 □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이지 않으면/않는 한 □일 수 없다.	(오직) △이어야(만) □이다.
□가 성립하면/보장되면, △가 성립한다/보장된다.	△가 성립하지/보장되지 않으면, □가 성립하지/보장되지 않는다.

△는 □이기 위해 필요하다./요구된다. /없으면 안 된다./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수적이다./필수불가결하다.	
△는 □이기 위한 요건/전제조건/선결조건/요구조건이다.	
□는 △를 전제한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이다.	A가 전제되면 B로부터 C가 도출된다
△를 통해서만 □이다.	A를 통해 B (?)

#### 4. 기출 탐구

##### 1) 한, 만<sup>11추리19</sup>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가 없는 한 개인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이 말은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차이가 있어야만 개인들을 차별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 2) ~충분조건

의식이 있으려면 뇌만으로는 안 된다.<sup>13인38</sup>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sup>17수능16~20</sup>

##### 3) 법령의 반대해석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식을 반대 해석이라 한다.<sup>2014수능예비평가</sup>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성년자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sup>2012학년도 LEET 추리논증 7번</sup>

##### 4) 일상어

“수학B형 100점 맞아야(만) 1등급<sup>기사제목</sup>”

##### 5) 필요충분조건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

③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sup>191116</sup>

## 6) 전제(1)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sup>15수능29</sup>

## 7) 전제(2)

확대 · 신장이 진정한 자기의 확대 · 신장이 되려면 생명이 하나의 주체로서 정립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 ② 생명의 자기확대와 신장은 주체로서의 정립을 **전제로 한다.**<sup>입법17가23</sup>

## 8) 통해서만 (1)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분열’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sup>200638</sup>

## 9) 통해서만 (2)

- ⑤ 등장인물의 심리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다.<sup>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3 19번</sup>

## 10) ‘만’ 주의: 주어집합을 고려해야 할 경우

- ① 철수가 찬성하면, 영희가 반대한다.
- ③ 철수가 찬성하면, 영희**만** 반대한다.
- ② 철수가 찬성해야**만**, 영희가 반대한다.
- ④ 철수가 찬성**만** 하면 영희가 반대한다.

## 5. 심화 주제

1) □→△는 언제 거짓이 되는가?

2) □→△와 관련하여 지문에 소개되거나 내용일치 선지로 나온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추론형식은 무엇이 있는가?

## One Point Lesson | A는 B와 ≠ A와 B는

- 1) A는 B와 결혼했다.
- 2) A와 B는 결혼했다.
- 3) A는 B와 항상 결부되어 있다.
- 4) A와 B는 항상 결부되어 있다.

## 941150 #Binary Opposition

<보기>에서 홀론의 부분성이 지니는 특징을 고른 것은?

⇒ 이것은 모든 홀론이 두 가지 성향, 즉 자율적 경향과 예측적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적 경향은 독립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홀론의 전체성이라 하고, 홀론의 부분성을 의미하는 예측적 경향은 복종의 형태로 나타난다. 홀론이 갖는 이러한 양면성이 역동적 평형 상태를 이룰 때 계층 구조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해지면 균형은 무너진다. 홀론의 자율적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전체의 구속을 벗어나게 된다. 반면에 예측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것은 전체의 노예가 된다.

## 941155 #n #Always&Everywhere

⑤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는 둘 다 관료 조직화된 사회이다.

⇒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현대 사회의 추이를 되돌아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부와 불평등과 독점의 폐허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거대한 실험은 결국 정치·경제·사회적 층위간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인하여 근래에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그런가 하면 종속 탈피와 민족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제3세계권의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느 권역이건 사회 전반의 관료 조직화와 대중화의 물결 속에 인간 주체성의 상실 및 인간 소외가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질로서 자리 잡고 있다.

## 951144 #세기 #참정권

② 20세기 이전까지는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 여성이 법적인 시민권, 곧 보통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Mini Quiz** 참정권의 뜻은?

**Mini Quiz** AD 1년, 100년, 101년은 각각 몇 세기인가?

**Mini Quiz** AD 1999년, 2000년, 2001년은 각각 몇 세기인가?

## ■ 961124 #상서롭다

④ 우리 선조들은 노인성을 상서롭지 못한 별로 생각했다.

➡ 고려 시대에는 노인성을 수성(壽星)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 별이 나타나면 장수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 ■ 951156~58 #OX

6세기 초반,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악기를 모방하여 가야금을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오래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고분에서 오늘날의 가야금과 같은 모양의 악기를 들고 있는 흙인형이 출토되었고, 3세기 후반 중국 진(晉)나라의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에 우리 나라 남부 지방[변진(弁辰)]에 지금의 가야금 비슷한 현악기가 존재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가실왕의 가야금 창제설, 특히 중국 악기의 모방이라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래 전부터 전해 오던 우리 악기를 가실왕이 중국 악기를 참조하여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④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① 가실왕의 가야금 창제설은 문헌적 근거가 있다.

## ■ 961129 #Before&After #Swap

중세어 문헌에서 ‘이틀, 사울, 나울, 다썰, 여썰, 날웨, 여드래, 아후래, 열흘’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수사(數詞)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틀’의 ‘일’은 좀 특이하지만 ‘일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사울, 나울’의 ‘사, 나’는 ‘서, 너’가 모음의 변화를 입은 것이요, ㉠ 나머지는 ‘다섯, 여섯, 날곱, 여덟~여덟, 아홉, 열’과의 관련이 쉽게 인정된다. 그리고 ‘이틀, 사울, 나울, 열흘’ 등도 ‘흐룰’과 같이 ‘을~을’을 가지고 있음을 본다.

➡ ⑤ 어원적으로 보면 수사는 낱자 명사에서 유래되었다.

## ■ 961137 #OX

① 동양의 화가들은 자연물의 움직임을 재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 동양의 화가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의 외형을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상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탐구하고 또 이러한 자연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던 것이다.

## ■ 961137 #Noticing the Gap #=&≠

③ 동서양의 미술은 표현 방법과 표현 대상이 동일하다.

➡ 동양에서는 자연물이 표현의 주된 대상이었던 데 반하여, 서구에서는 자연물보다는 주로 인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 ■ 961142 #=&≠

④ 육경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는 동등한 비중을 지닌다.

➡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깊은 조예를 가졌다 해도 육경의 뜻을 완전히 알아서 세밀한 것까지 읽지 읽기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여러 사람의 장점을 널리 모으고 보잘 것 없는 성과도 버리지 않는 다음에야 거칠고 간략한 것이 유실되지 않고 얇고 가까운 것이 누락되지 아니하여 깊고 멀고 정밀하고 자세한 체제가 비로소 완전하게 갖추어지는 것이다.

## ■ 961157 #Quotation

키케로가 이미 갈파했듯이, ㉠철학자의 책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

## ■ 971124 #Consistency

⑤ 계층적 명분관과 도덕적 명분관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을 가진다.

➡ 한국인의 전통적 명분관은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나 상하의식에 따라 각각의 분수를 지키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계층적 명분론의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개인이나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판단이나 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명분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 971140 #Myth&Truth #Warning

③ 과학은 객관적 진리를,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O)

➡ 흔히 과학자는 논리적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예술가는 직관적 영감에 의존해서 주관적인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 많은 과학상의 발견들은 직관적 영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 ■ 971161 #Consistency

⑤ 보편적 사상은 인간들의 추종성을 극복함으로써 성립한다.

➡ 추종성(追從性)은 인간의 주체성과 배치(背馳)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이해를 통하여 보편적인 사상이 성립하도록 해 주는 바탕이기도 하다.

## ■ 981139 #OX

⑤ 작은 고을부터 탈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궁벽하고 먼 고을은 기회를 보아 토벌할 수 있으니, 큰 성과 도시에 힘을 합쳐 함께 멸할지라.

## ■ 981115 #O—O #Consistency

㉠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① 진퇴양난(進退兩難)

③ 일진일퇴(一進一退)

⑤ 양자택일(兩者擇一)

➡ 디자인(design)의 기본 개념은 기능과 모양새이다. 이 두 요소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사이의 조화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 ㉠기능을 중시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981151 #Paraphrasing #Change

② 정보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 관계는 산업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

➡ 정보 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大勢)로서 우리의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산 체계, 일을 조직하는 방법, 소비의 유형 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산업의 위상도 바뀌고 있다. 또한 여가 및 취미 생활, 사회적 인간 관계 등 사람들의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사고 방식, 가치관마저도 변화하고 있다.

## ■ 981159 #Consistency

② 자연에는 열평형 상태와 비평형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 자연에는 열평형 상태, 곧 최대 엔트로피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비평형 현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991119 #Presupposition

윗글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의문은?

② 서양화가 동양화의 투시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 ■ 991124 #Necessary Condition #Problem&Solution

⑤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실천 의지가 요구된다.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해야 한다. 물질적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 버리고,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순수성을 쉽게 배제해 버리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혼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략)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과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각자 '진정한 인간성'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 991156 #Influencer

⑤ 세계화로 인하여 개별 국가의 고유한 생활 양식이 고착된다.

⇒ 문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국제적인 차원의 연결망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문화 및 생활 양식이 전세계로 신속하게 퍼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뉴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중 음악,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세계 시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 ■ 001113 #Swap

② 세종은 박연 등을 통하여 향악<sup>중국계 음악</sup>을 정리하려 하였다.

⇒ 세종이 박연 등에게 조화에 사용할 아악<sup>우리나라의 전통 궁중 음악</sup>을 정리하라고 명한 다음의 언급은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보여 준다.

## ■ 001119 #Noticing the Gap #=&≠

③ 동물과 인간은 의사 소통 방법에 차이가 없다.

⇒ 동물의 의사 소통 수단과 인간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 벌들도 서로의 약속이 없다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벌의 춤은 한정된 정보만 전달한다. 반면 인간은 한정된 수의 음소 및 단어와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규칙을 토대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유한한 요소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 내는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인간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 없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질도 가지고 있다. 어제의 일이나 다른 곳의 일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과거의 사건은 어미 '-었-'으로, 다른 곳의 사건은 '저기에서'와 같은 부사어로 실현시킨다. 이처럼 현재 여기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전위(傳位)라고 한다.

## ■ 001140 #Change #Noticing the Gap #=&≠

① 루소는 문명의 발전을 인성의 발전과 동일시하였다.

➡ 루소의 사상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으나, 사회와 문명이 들어서면서 악해지고 자유를 상실하고 불행해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 ■ 001144~49 #Myth&Truth #All&Some #Exception

우리는 역사상의 모든 인간 사회들이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 ■ 001163 #Gordian Knot

㉠가 함축하는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황윤석의 「이수신편(理藪新編)」에 있는 ‘난법가(難法歌)’의 문제 중 하나를 보자.

“㉠만두 백 개에 ㉡스님이 백 명인데, ㉢‘큰 스님’에게 세 개씩 나누어주고 ㉣‘작은 스님’은 세 사람당 한 개씩 나누어 준다면, ㉤큰 스님은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은 몇 명일까?”

요즘 중·고등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마도 많은 학생들은 연립방정식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즉, 큰 스님의 수를  $x$ , 작은 스님의 수를  $y$ 라 하면, ‘ $x + y = 100$ , ㉢ $3x + \frac{1}{3}y = 100$ ’이므로 이를 풀어 답을 구할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으로, 서양에서는 17세기 경부터 쓰여 온 방법이다.

## ■ 011118 #OX

② 과도적인 차용 문화는 외래 문화를 비판적·주체적으로 수용한 문화이다.

➡ 과도적인 문화 속에는 한국 사회에 적합성을 가지지 못하는 차용된 외래 문화가 많다. 그와 같은 차용 문화는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통 문화의 해체(解體)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화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외래 문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적으로, 비판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되었다기보다는 모방과 도입에만 급급하면서 받아들인 문화이다.

## ■ 011152 #All&Some

③ 영화의 프레임은 모든 대상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틀이다.

➡ 영화 프레임에서는 수직적 구성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거리를 한 번에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수직적 프레임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다.

**Mini Quiz** ‘모든 학생은 모자를 쓴다’는 언제 거짓이 되는가?

**Mini Quiz** ‘어떤 학생은 모자를 쓴다’는 언제 거짓이 되는가?

**Mini Quiz** ‘학생 a가 모자를 쓰지 않는다’는 위 두 예문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 ■ 011128 #Necessary Condition +090613

- ② 유전자 재조합은 DNA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유전자 재조합은 제한 효소와 리게이스가 필수적이다.
- ⇒ 유전자를 재조합하기 위해서는 DNA를 절단하는 가위와 이를 접착하는 풀이 필요하다. 가위의 구실을 하는 것은 '제한 효소'라는 단백질인데, 이것은 DNA의 각기 다른 위치에서 작용한다. 풀 구실을 하는 것은 '리게이스'라고 부르는 효소인데, 이것은 절단된 DNA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 ■ 011137 #Necessary Condition

- ④ 행위자의 자발성과 절차적 공정성은 호혜적 교환 관계의 전제 조건이다.
- ⇒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 바로 시장이다. //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 ■ 011137 #DLB

- ⑤ 반시장적 요소와 비시장적 요소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 ⇒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 ■ 021118 #Sufficient Condition

- ②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 장기적 이익을 보장받는다.
- ⇒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와 상충할 때에는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한다.

## ■ 021118 #보조사

- ③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 ③ 자본주의 초기에만 기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켰다.

## 021123 #All&Some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고유어로만 구성된다.
- ② 실제적 필요와 표현의 참신성을 위해 생겨난 새말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른다.
- ③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든 새말은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지 않는다.
- ④ 흔하지 않은 조어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결국 사라진다.
- 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말을 대체하기도 한다.

## 021147 #달리

- ④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와 달리 마당에서 움직이면서 한다.

**Mini Knowledge** a는 b와 달리 P이다.

## 070959 #OX

- ②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
- ④ 내 고장에 왜놈들을 들여놓을 수야 있나.
- ➡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관군과는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 100932~34 #달리 #Influencer

제도와 달리 지리적 조건은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31125~28 #달리

영화 화면의 테두리인 프레임과 달리, 만화의 칸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 140617 #달리

- ⑤ 달의 하늘에서는 공기 입자에 의한 태양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 ➡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 161129~30 #달리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 ■ 200619~22 #달리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 ■ 160616 #달리

② 정맥은 지문과 달리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정보로 활용할 수 없다.

→ 지문은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홍채,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 #160624 #Necessary Condition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 ① 도덕적 판단의 변화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 없다.

→ ③ 도덕적 판단과 달리 감정이 바뀔 때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 ⑤ 감정과 달리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

### ■ 021147 #Comparison #Noticing the Gap

④ 잠잘 때는 깨어 있을 때보다 내적 욕구가 더 강해진다.

→ 우리는 꿈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외면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를 '투사(投射, projection)'라고 하는데, 우리는 꿈속에서 평소에는 억누르고 있던 내적 욕구나 콤플렉스(강박 관념)를 민감하게 느끼고, 투사를 통해 그것을 외적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 ■ 030913 #Presupposition

④ 기업은 동일한 노동 생산성 하에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기업 측에서는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이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시간 외 일에 대한 초과 임금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QNA] 2021학년도 사관학교 1차 국어 17번

④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의 ‘여기’는 현실적 삶의 공간이자 떠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실적 삶의 공간	떠날 수 있는 공간
동양		
서양		

공부하면서 ‘달리’가 들어간 결정적 문장(지문, 선지)을 만나면 아래에 수집해두세요.

## ■ 030914 #Criticism #Conditional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실업 문제의 해소를 노동 시간 단축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 030923~27 #Necessary Condition #만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피하듯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꺼리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듯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 ■ 031118 #SWK

⑤ 공룡 멸종 이후에 나타난 생물의 화석은 신생대 지층에서 발견될 것이다.

- 한때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이 중생대 말에 갑자기 멸종했는데, 이에 대해 1980년에 알바레즈(W. Alvarez)는 운석 충돌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Mini Knowledge** 선캄브리아기 → 고생대 → 중생대 → 신생대

## ■ 030940 #Presupposition #SWK #물리변화 #화학변화

② ㉠ : 엄청난 발열 반응은 화학 변화의 증거일 수 있다.

- 진한 황산이 묽은 황산으로 변하는 것은 황산의 농도 변화에 지나지 않으니 물리 변화가 아니냐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그렇지 않다. 굳이 분자 구조의 변화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진한 황산은 탈수 성질이 있는 반면에 묽은 황산은 그렇지 않고, ㉠진한 황산에 물을 섞을 경우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⑤ ㉡ : 소금은 전류가 통하지 않는데 소금물은 통한다.

- 소금이 물에 녹으면 이온 결합이 깨지고, 그로 인해 ㉡전류가 통하지 않던 부도체가 전류가 통하는 전해질로 변화하기는 한다.

**Mini Knowledge** 화학변화 #Error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현상은 물리 변화인가, 화학 변화인가?”, “진한 황산을 물에 희석하여 묽은 황산을 만드는 과정은 물리 변화인가, 화학 변화인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리 변화라고 답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답은 화학 변화이다. 우리는 흔히 물리 변화의 정의를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나 모양만이 변하는 현상’으로, 화학 변화의 경우는 ‘어떤 물질이 원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물질의 성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물질의 성질’은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나 이온의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성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자나 이온의 구조가 달라지면 물질의 성질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text{CO}_2$ )는 물과 결합해 탄산 이온( $\text{HCO}_3^-$ )을 형성하여 탄산수가 된다. 이것은 이산화탄소와 물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현상은 화학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설탕이 물에 녹는 경우는 설탕의 색과 모양만 변하므로 이러한 용해 현상은 물리 변화에 해당한다.

### ■ 030947~51 #급부 #반대급부 +190624

물질적 반대 급부를 기대하고 예술가를 돕는 후원자가 보기에는, 예술가의 재능은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대상일 뿐이다.

### ■ 031137 #ㄷ

① 지도는 인간의 의사 소통 수단 중의 하나이다.

➡ 지도는 지표(地表) 공간에 관한 인간의 의사 소통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다.

### ■ 031137 #Context #Most

③ 옛 지도는 주로 행정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지도는 조선 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 조선 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의 대부분은 관(官) 중심으로 만들어져 통치와 행정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 ■ 040618 #위상 #이중피동

③ 위기지학의 정착으로 경학의 학문적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 위기지학의 출현은 종래 과거제에 종속되어 있던 교육에 독자성을 부여했다는 점, 또 해석하고 외우는 공부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경학(經學)이 교육의 힘을 가진 진정한 학문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 받아 마땅한 것이다.

### ■ 031137 #Swap #Context

⑤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다양한 주제도가 발달하였다.

➡ 근래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컴퓨터 용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컴퓨터 지도가 발달하였다. 컴퓨터 지도는 수치 지도[디지털 지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종이 지도와는 크게 다르다. 수치 지도는 기존의 지도에서 사용되던 기호 체계를 사용하되, 각종 지리 정보들을 표준 코드로 분류하여 저장한 지도이다. 수치 지도는 토지 이용도, 지적도, 지하 시설물 위치도, 도로 지도, 기상도, 식생도와 같은 주제도(主題圖)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치 지도를 활용하는 체계를 ‘지리 정보 체계[GIS]’라고 부른다.

### ■ 031138 #n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의 개념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 ① 공간 정보를 기호 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 ■ 031142 #Paraphrasing

⑤ 해프닝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삶에 가깝다.

- 우리의 삶 자체가 일회적이고, 일관된 논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해프닝과 삶 자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 ■ 031144 #Symmetry

기존의 작가들은 자신의 창조적 개성과 예술적 전통을 조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은 문화적 자산으로서 길이 보존되는 동시에 다수의 관객이 함께 즐기는 공동체의 산물이 된다. 이에 반해 해프닝은 ( )

### ■ 031158 #DLB

② 사전에서 방언이나 옛말을 찾아 쓰는 것은 어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옛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 040650 #SWK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호 관계의 증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보다 공손 원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 '협력 원리' : '공손 원리'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④ 일반법 : 특별법

### ■ 040657 #Presupposition

③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의 위상을 격하시켰다.

- 활력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계기로 한 시대를 풍미한 유물론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고귀한 위치로부터 끌어내려 단순한 물질로 격하시킨 것에 대한 방어 수단의 하나로서 지난 2세기 동안 강력히 옹호되었다.

## ■ 040618 #n

③ 사진에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된다.

➡ 사진이 현실 재현 수단이라는 기본 구도 아래,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현실을 골라 이를 영상화한 것이 근대 사진이었다. // 현대 사진은 현실을 포장지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작가의 주관적 사상이나 감정, 곧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현실을 인식한다. / 현대 사진이 현실에 묶여 떠나지 못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한 찍히지 않고 실체로서의 현실을 떠나서 성립할 수 없는 사진의 메커니즘 탓이다.

## ■ 040637 #Comparison #Binary Opposition

① 협상 주제와 관련된 힘에 비해 협상 전술이 훨씬 더 중요하겠군.

➡ 구조와 절차의 두 측면을 고려하여 자유주의적 입장은 “협상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구조적 요소로서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힘’과 절차적 요소로서의 ‘협상 전술’이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이에 따라 약소국도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스 로버트라는 학자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론을 적절하게 뒷받침한 바 있다. 그는 자원과 전술을 적절히 조화시킬 경우 약소국이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협상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 ■ 040659 #Comparison #Consistency

② ⑥보다는 ③이 생명체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다.

③ ⑥는 생명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③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 040655~60 #Top-down #Bottom-up

생물학은 생명을 다양한 계층 구조에 의하여 구성된 하나의 생화학적 기계로 보기 때문에, 상위 계층부터 하위 계층까지 더듬어 내려가는 ‘하향식(top-down) 방법’으로 물질을 분석하여 생명의 기제(機制)를 연구한다. 따라서 오로지 탄소 화합물의 생화학에 의존하는 생물학은,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인 역동적인 형식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공생명론은 생명을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에서 생겨나는 특성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 작용하는 간단한 구성 요소를 모아서 거대한 집합체를 만들어 내는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행동의 합성을 시도하여 생명의 역동적인 형식을 연구한다.

## ■ 040923 #Criticism #Condi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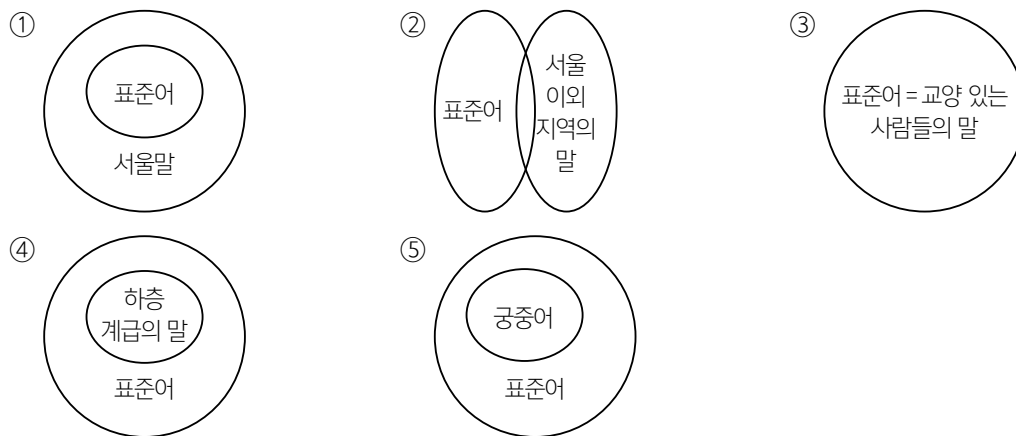
“행정 수도를 옮기면 표준어의 지역적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기>를 이용하려고 한다.

## 040921 #Exception #Imagine That

현재 한국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규정상으로 서울말이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1912년 ‘보통학교 용 언문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과 같이 선포한 때다. 이것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처럼 좀 더 정밀하게 규정되었고,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는 다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얼마간 표현을 바꾸었다.

위의 세 규정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1933년과 1988년의 규정에서는 ‘대체로’와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으로 서울말이 그대로 전부, 또는 서울말만 표준어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1933년과 1988년의 규정에 ‘대체로’나 ‘원칙으로 한다’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 이유를 보인 것 중, (나)의 논지에 맞는 것은?



## 040937 #Criticism

글쓴이가 제시한 무용 감상법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적절한 의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용을 감상하면서 어떤 한 부분, 예를 들어 무용수의 팔 동작이 그리는 도형이나 배경이 되는 음악에만 관심을 갖는 관객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객은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감각 기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무용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② 작품은 여러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 ■ 040948 #DLB #=&#x2264;

③ 유럽인은 유럽 밖의 사람들과 기원이 같다고 생각하였다.

➡ 유럽인은 유럽을 비(非)유럽, 곧 '다른 세계'를 통해 정의하여 왔다. 유럽보다는 '유럽 이외의 사람들'이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들은 유럽인과 기원이 같지 않기 때문에 무능할 뿐 아니라 영원히 정치적인 혼란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 ■ 040948 #Swap #Influe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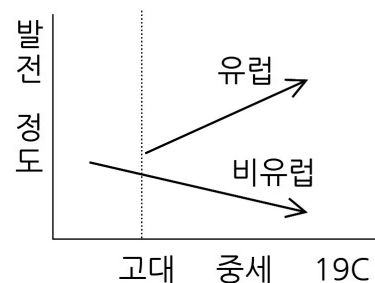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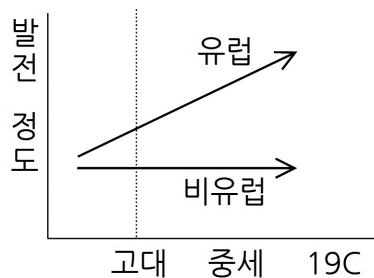
④ 유럽인은 그리스 문명이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 유럽인은 이집트가 문명의 원천이라고는 생각하였지만, 이집트가 지닌 지식은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런 이집트에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하였다.

## ■ 040950 #OX #Imagine That

탐험가들이 석기만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아메리카나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퇴보론(退步論)이라는 관념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것은 유럽이라는 세계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전의 문명 단계에서 더 낮은 단계로 퇴보하였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로크(J. Locke, 1632~1704)가 전 세계에 석기 시대가 존재하였고, 아직도 석기를 쓰는 사람들은 퇴보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잔존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자 로크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로크 이후 19세기까지의 유럽인이 생각하였던 유럽과 비유럽의 역사 발전 과정을 그림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 041120~24 #Myth&Truth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 문화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관념을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여긴다. 나아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문화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믿기도 한다. 그러나

## ■ 040952 #=&≠ #SWK

④ 물리학자들이 발견해 낸 입자들의 존재는 그리스인들이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물질이 '원자'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세한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몇 종류의 원자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이토록 방대하고 다양한 물질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소 단위에 대한 개념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물질관은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물질의 최소 단위로 생각되는 미세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리스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아니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는 구조로 된 복합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한동안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바로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최소 단위, 즉 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68년에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센터의 실험에 의해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운 쿼크'와 '업 쿼크'라고 명명된 두 가지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더욱 강력한 기구를 발명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입자들을 찾아냈다.

## ■ 041134~38 #SWK #체계 #구조

체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는 '선택'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선택'이란 한 체계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 언어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고자 할 때,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러한 각각의 세 항목을 두고 선택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곧 단어들의 체계이다. 즉 체계란,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선택 가능항(選擇可能項)의 집합이라 말할 수 있다.

언어를 살필 때에 구조라는 개념 또한 중요하다. 구조란 대체로 언어 형식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와의 관계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앞에서 '체계'를 선택 관계로 설명한 바 있는데, '구조'는 이와 달리 통합 관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언어 단위이지만, 그것은 음운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음운은 구성 요소가 되고, 형태소는 구조가 된다. // 한편, 형태소는 다시 상위 구조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 ■ 041139 #Comparison

④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공간성보다 시간성을 강조한다.

→ 좋은 그림책이란 어떤 것인가? 회화의 공간성과 영화의 시간성이 간결한 언어와 입체적으로 만나서 풍부한 이미지를 주는 그림책이다.

## ■ 040659 #Module

생물학은 생명을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로 보지만, 인공생명론은 '단순한 기계의 복잡한 집단'으로 본다.

**Mini Knowledge** 앞으로 출현할 뛰어난 성능의 인공지능은 복잡한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모듈들이 계층적으로 결합된 형태가 될 것이다.” \_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조성배가 레이 커즈와일이 쓴 ‘마음의 탄생’ 감수의 글에서

## ■ 101146~50 #Module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를 분해하여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 결과를 통합한다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 ■ 041139 #독자적

②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책의 글은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 오랫동안 그림책은 글자를 터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른이 읽어 주는 책이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책을 장식하는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도구였던 일러스트레이션이 오늘날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림책이 독자적인 장르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이다.

**Mini Knowledge** 독자적

1. 남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혼자서 하는
2. 다른 것과 구별되는 혼자만의 특유한

## ■ 041139 #DLB #C

③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순수 회화의 하나로 취급된다.

➡ 그림책의 그림은 순수 회화와 구별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

## ■ 041143~47 #Classic

고전 역학은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다.

㉠물리적 속성에 대한 측정 = 측정 대상의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과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를 넘지 않고 공간을 거쳐 전파된다는 가정이 그것이다.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양자 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스핀 값의 총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을 유지한다. 이제 이 두 입자 중 하나는 지구에 놓아두고 다른 하나는 금성으로 보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의 수평 성분 스핀을 측정하여 +1을 얻었다면, 금성에 있는 입자의 수평 성분 스핀이 -1이 된다. 도대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난 측정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양자 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스핀도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수평 스핀과 수직 스핀은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지구 입자의 수평 성분 스핀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연이어 수직 성분 스핀을 측정하고 다시 수평 성분 스핀을 측정하면, 이제는 +1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㉔ 두 번째 수직 방향 측정이 수평 스핀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지구 입자는 금성 입자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금성 입자의 수평 스핀을 측정하여 -1을 얻은 후 지구 입자의 수직 스핀을 측정하면, 그 순간 금성 입자의 수평 스핀 값 역시 불확실해진다. 그래서 수평 스핀을 다시 측정하면 -1과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 고전 역학의 가정을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1** ㉓, ㉔, ㉕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 ① ㉔는 ㉓가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② ㉔는 ㉔가 맞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 ③ ㉔는 ㉓가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④ ㉔는 ㉔가 맞다면 불가능한 결과이다.
- ⑤ ㉔는 ㉓와 ㉔가 동시에 맞는 경우에만 당연한 결과이다.

**2** <보기 1>의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 보기 1 |—

같은 방향에 대한 스핀 값의 총합이 0인 양자 구슬 한 쌍을 생각하자. 이 두 구슬은 수평 스핀이 +1이면 뜨겁고, -1이면 차갑다. 그리고 수직 스핀이 +1이면 '딩' 소리가, -1이면 '댕' 소리가 난다. 이제 구슬 하나는 내가 가지고, 다른 구슬은 친구에게 주어 멀리 보냈다고 하자. 내가 구슬을 두드려 보니 '딩' 소리가 났다. 그런 후 내 구슬을 만져 보니 뜨거웠다. 그리고 구슬을 다시 두드려 보니 ( A )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가 구슬을 두드린다면 ( B ) 소리가 날 것이다.

—| 보기 2 |—

	A	B
ㄱ. '딩'	'딩'	
ㄴ. '딩'	'댕'	
ㄷ. '댕'	'딩'	
ㄹ. '댕'	'댕'	



## ■ 041146 #Comparison

② 물리학자들은 고전 역학이 양자 역학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보다 더 많은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고전 역학을 대체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었다.

## ■ 041146 #DLB

③ 양자역학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예측과 인과적 설명은 구별할 필요가 있어.

➡ 양자역학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 ■ 041146 #Paraphrasing

④ 양자 현상은 이상하기는 하지만,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으니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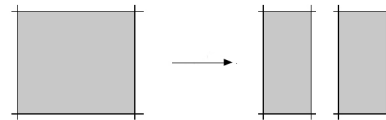
➡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루어진 아스펙의 일련의 실험 이후, 이러한 양자 현상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 ■ 041141 #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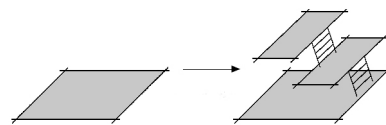
㉠말이 줄어들어 생긴 빈 자리에 상상력과 사유가 깃든다. 이는 건축 설계시 형태, 장식, 공간과 같은 요소들 가운데 공간을 다양하게 변용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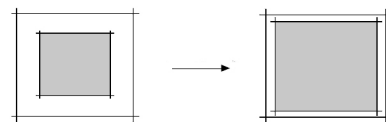
① 한 채를 둘로 나누어 자연 공간을 끌어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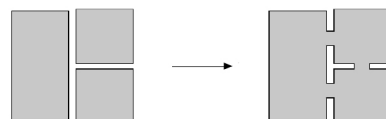
② 옥상을 다층적으로 설계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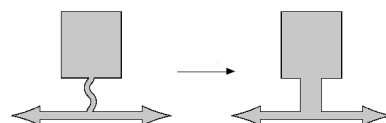
③ 건물 이외의 공간을 최소화해서 생활 공간을 넓힌다.



④ 건물들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서 삶의 편의를 도모한다.



⑤ 좁고 구부러진 길을 넓고 곧게 정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 041151 #Criticism #Conditional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인간에게 이러한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은 꽃피지 못하고 만족감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목가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다.

- ③ 사회성만으로도 재능이 계발될 수 있다.
- ④ 반사회성만으로는 재능이 계발될 수 없다.

## ■ 05예비38 #Swap

③ 과학은 기술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기술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는 실험적 수단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과학적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과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법칙과 이론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 ■ 05예비47~51 #Process

인상파는 하나의 유파로서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세잔과 고흐, 고갱 등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한편으로 인상파가 이룩한 업적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상파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 ■ 05예비52 #SWK

⑤ 적색편이 현상은 은하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려 준다.

⇒ 20세기 초반 천문학자 허블은 윌슨 산의 망원경을 통해 먼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에서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편이(赤色 偏移)'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본래의 파장값보다도 큰 값으로 지구상에서 관측된 것인데, 이는 은하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 주는 증거였다.

## ■ Mini Knowledge 도플러 효과

## 05예비34 #SWK #음차 #훈차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우리말 단어의 발음 기호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길동'이라는 지명을 적기 위하여 '吉'[길]과 '同'[동]을 끌어와 '吉同'으로 적고 [길동]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자의 음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음차 표기'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자의 뜻, 다시 말해서 훈(訓)을 빌려와 우리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栗'(밤 울)의 훈으로 [밤]을 나타내고, '峴'(고개 현)의 훈으로 [고개]를 나타내어, '栗峴'으로써 우리말의 [밤고개]를 표기하는 것이다. '栗峴'을 [울현]이라 읽지 않고 [밤고개]로 읽는 이 방법은 한자의 뜻, 즉 훈(訓)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훈차 표기'라 한다. // 우리말은 [곳], [달]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수도 2,000개 이상이 필요하였다.

- ① 훈차에서 한자 한 글자는 우리말 음절 하나와 대응되었다.
- ③ [곳], [달]과 같은 음절은 한자 한 글자로 음차 표기할 수가 없었다.
- ④ '坪村'을 [평촌]으로 읽으면 음차가 되고, [벌말](벌마음)로 읽으면 훈차가 된다.

**Mini Knowledge** 낭만(물결 랑+흠어질 만): 미묘하게 일렁이는 마음의 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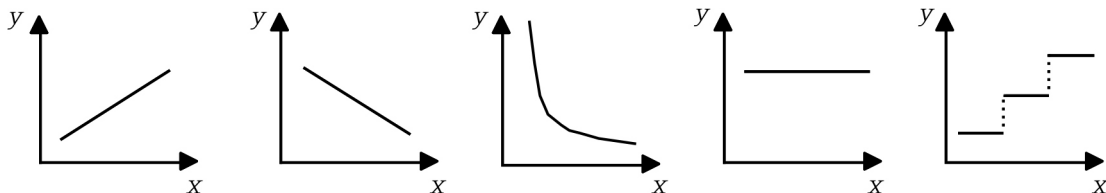
## 05예비55 #Presupposition #Imagine That

흥미로운 것은 지구와 관측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적색편이의 비율과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 ㉠을 결합시키면,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보기 —

(나) : '적색편이, 속도, 거리'의 관계 설명  
→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밑글의 ㉠에 들어갈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x$  : 적색편이의 비율,  $y$  : 멀어지는 은하의 속도)



## 05예비52 #Presupposition #Imagine That

① 가까운 은하보다 먼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빠르다.

→ 가까운 은하보다 먼 은하의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가 좁아지는 순간이 없이 간격을 1m만큼 더 벌린다고 해 보자. 간단히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음 사람부터 동시에 1m씩 이동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사람은 1m 이동하면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2m, 세 번째 사람은 3m를 물려서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N 번째 사람이라면 Nm만큼 물려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이가 좁아지지 않아야 하므로, 기준으로부터 먼 사람은 가까운 사람보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 05예비52 #ㄹ #만

③ 중력만 작용하는 은하들로는 정적인 우주를 만들 수 없다.

→ 은하들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우주를 엮어 놓으면 중력에 의해 은하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정적인 모습은 바로 붕괴된다.

## 05예비44 #SWK #Imagine That

다음 글의 설명에 따를 때, ㉠~㉣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보여 주었듯이, 인생이 하나의 긴 꿈에 불과하다는 ‘꿈의 가설’에서 어떤 ㉠논리적 모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적 가능성이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꿈의 가설을 굳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 ①

㉠ 논리적 모순	㉡ 논리적 가능성
㉢ 진리	

②

㉠ 논리적 모순	㉡ 논리적 가능성
	㉢ 진리

③

㉠ 논리적 모순	㉡ 논리적 가능성
	㉢ 진리

④

㉠ 논리적 모순 = ㉢ 진리	㉡ 논리적 가능성

⑤

㉠ 논리적 모순	㉡ 논리적 가능성 = ㉢ 진리

## ■ 050629 #Imagine That

② 글쓰이는 평생에 걸쳐 사서 편찬에 종사하였다.

➡ 우리 해동 삼국은 역사가 오래되어 그 사실이 응당 책에 밝혀져야 되겠기에, 늙은 신에게 명하여 이를 편집토록 하였으나, 스스로 돌아봐도 부족할 따름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 ■ 050620 #Generalization #Influencer

① 1950년대 미국에서는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다.

② 사람들이 선호하는 몸의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③ 경제 상황이 사람들의 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한 사회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930년대에는 바싹 마른 몸매의 여성이,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1930년대에는 일하는 여성이 필요했기에 민첩해 보이는 마른 여성이 매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풍조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풍만한 곡선미를 지닌 여배우의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 ■ 05예비55~60 #백안시 #SWK

인간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소비하는 품목과 방식은 성, 연령, 직업, 계층,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취향'은 가정 환경과 같은 개인의 성장 배경에서 길러진 것이지만 자신의 취향을 '타고난 성향'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백안시(白眼視)함으로써 계층을 구분하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한다.

**Mini Knowledge** 081133: 도외시 111124: 멸시, 천대, 등한시, 문제시, 이단시

## ■ 050616~19 #절충 #제

절충이나 종합은 흔히 은폐와 호도(糊塗)의 다른 이름일 뿐,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 사회,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객관적 제 조건에 비추어, 비록 상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중, 선후를 준별하고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실천적 파당성(派黨性)이 도리어 '시중(時中)'의 진의이며 중용의 본도(本道)라고 생각됩니다.

**Mini Knowledge** 절충

②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여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sup>181116</sup>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sup>190616</sup>

## ■ 050632 #Swap

㉔ 백낙천도 동명왕 이야기를 읊었다.

➡ 「당현종본기」와 「양귀비전」에는 방사(方士)<sup>신선의 도술을 익히는 사람</sup>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인멸될까 두려워 노래로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데도 읊어서 후세에 보였다.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 ■ 050645~48 #Analog&Digital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환기의 원리가 들어 있는 방목은 시보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즉, 수수호에 물이 차올라 잣대가 떠오르면서 방목 안에 설치된 장치가 구리로 만든 작은 구슬을 차례대로 떨어뜨린다.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인 아날로그 신호가 일정한 간격마다 구슬이 떨어지는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슬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시보 장치에 전달되어 시간을 알려 주는 데 사용된다.

## ■ 050628 #Necessary Condition

다음 글에 나타난 벤아민의 주된 논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우라(Aura)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대상과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예술 작품은 심연에 있는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 그런데 사진이나 카메라 등과 같은 기계적, 기술적 장치들이 예술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파괴되는데, 벤아민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영화를 든다. // 영화 초창기에 대두된 벤아민의 이러한 비판이 오늘날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는 영화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㉔ 영화를 두고 예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기준도 변하잖아.

## ■ 050652 #침윤 #침잠

청소년들은 상업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그 문화에 침윤되어 가고 있다.

➡ 예술미에 침잠하여 잠시나마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상태 (080933)

## 050659 #Feasibility

④ '주춧돌 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되겠어.

➡ 생태계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대갈못 가설'을 주장한다. 이 가설에서는 생태계를 마치 금속 조각판을 못으로 이어 만든 하나의 비행기에 비유한다. 만약 못이 하나씩 빠져나가면 비행기 동체는 점점 약해지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비행기는 폭삭 무너지게 된다. 무너지기 직전의 마지막 못은 비행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생물종을 이른바 '주춧돌 종'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생태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네트워크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Mini Quiz** 바람직한 해결책은?

## 050646 #Absolute&Relative

<보기>를 이용하여 자격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격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 주는 시보 장치, 물시계와 시보 장치를 연결해 주는 방목(方木)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시보 장치의 상단에 설치된 3개의 시보 인형은 시(時), 경(更), 점(點)마다 각각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린다. 시보 인형 가운데 하나는 시를 알려 준다. 매 시각마다 인형의 팔뚝과 연결된 제어 장치가 작동하여 인형의 팔뚝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종을 울리게 한다. 시를 담당한 인형이 종을 울리면 곧이어 시보 장치 하단에서 12지신 가운데 그 시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온다. 예를 들어 자시(子時)에는 쥐 인형이 '자(子)'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지금 울린 종소리가 자시라고 알려 준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은 시보 장치 안에 있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된다. 경과 점을 알려 주는 다른 2개의 인형은 경점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작동하면서 시간을 더 자세하게 알려 준다.

### | 보기 |

- 경점법이란 해가 진 뒤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하룻밤을 5등분하여 5경으로 나누고, 1경은 다시 5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은 매일 조금씩 변하므로 경과 점의 길이 역시 조금씩 달라진다.

- ① 경과 점을 알리는 시보 인형은 밤에만 작동한다.
- ② 12지신의 동물 인형은 항상 같은 간격으로 나타난다.
- ④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리는 시간 간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 ⑤ 시보 인형 3개의 역할은 각각 오늘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에 해당한다.

### ■ 050917 #면책

③ 경찰과 동행 취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내에서 불법으로 개인 지도를 하던 대학 교수를 헌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현장을 방송 기자가 경찰과 동행하여 취재하던 중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습실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취재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 ■ 050931 #MetaX #Swap

[A]에는 여러 층위의 화자가 존재한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A] “‘[광한 자는] 왜 저렇게 잘난 척하는가? 말은 행실을 외면하고, 행실은 말을 외면하는데도 입을 열었다 하면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하는가.’하고 ‘[견한 자는] 어찌 혼자서만 도도하게 살아가는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면서 자신은 음흉하게 세상에 아침하는 자가 바로 향원이다.”

- ① 맹자는 향원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맹자는 광한 자를 조롱하고 있다.
- ③ 향원은 광한 자를 흠모하고 있다.
- ④ 향원은 견한 자를 칭찬하고 있다.
- ⑤ 광한 자는 옛사람을 비난하고 있다.

### ■ 050934 #Most

③ 우주가 생성될 때 대부분의 원소도 같이 만들어졌다.

⇒ 우주가 생성될 때 일어난 대폭발로 수소와 일부의 헬륨이 생겼다.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헬륨과 또 다른 원소들<sup>탄소, 산소, 마그네슘, 규소, 황 등</sup>이 만들어졌다.

### ■ 050934 #Necessary Condition #Warning

④ 탄소가 만들어지려면 일억 도( $10^8$ K)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

⇒ 수소가 핵융합을 하여 헬륨을 생성하는 단계가 끝난 후, 별의 중심부 온도가 일억 도( $10^8$ K) 정도로 올라가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헬륨 3개가 결합하여 탄소가 만들어지며, 탄소에 하나의 헬륨이 더해져 산소가 만들어진단다.



## 050951 #OX

다음 글의 문맥으로 보아 시계(視界) 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시계(視界) 속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진리로 나아간다. 감상자는 예술 작품 속에 존재하는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대화 방식의 감상을 통해 예술 작품과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낸다. 예술 작품을 자신이 갖고 있는 전이해(前理解)의 예증(例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외재(外在)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 이를 초월·확대·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야(視野)를 획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 작품도 자신과는 다른 감상자를 통해 자신의 의미를 초월하게 된다.

## 050939~42 #SWK #Binary Opposition

환유는 인접성을 바탕으로 사물이나 관념을 지칭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령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에서 실제 끓고 있는 것은 주전자의 물이지만, ‘주전자’라는 용기(容器)의 이름이 그 내용물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칭 기능은 지시물 사이의 인접성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표현을 ‘물이 끓고 있다’로 이해하는 것은 ‘주전자’와 ‘물’ 사이에 밀접한 인접성이 있어서 의미 연상을 통한 의미 전이가 신속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접성에 의한 의미 전이로 인해서 환유는 일상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확대 지칭’과 ‘축소 지칭’으로 구별된다. 확대 지칭은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축소 지칭은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손이 모자라다’에서는 신체의 부분인 ‘손’으로 ‘일꾼’을 확대 지칭하며, ‘온 동네가 기뻐했다’에서는 전체인 ‘동네’로 ‘동네 사람’을 축소 지칭한다.

## 050949~50 #Necessary Condition #Quotation

예술 작품의 의미는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만나게 되는 감상자에 의해 해석된다. 그런데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준거들이 있어야 한다. 준거들이 없다면 해석은 감상자의 주관적 이해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석의 준거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참조 체계이다. 감상자가 예술 작품과 만나는 역사적 순간의 참조 체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새로운 관계에 의거해 감상자는 예술 작품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낸다.

따라서 예술 작품이 계속 전해지지만 한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참조 체계를 통해 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근본적으로 예술 작품의 의미는 무궁하다. 이것은 “셰익스피어는 모두 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같다. 이때 ‘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예술 작품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작품의 의미는 예술 작품 밖에 존재하는 참조 체계의 무궁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끊임없이 새로운 (㉠)를 찾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를 획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를 형성하며 새로운 (㉣)를 생산한다.

## 050958 #Binary Opposition

다음 글에 나타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절대로 겹치는 법이 없는 한 쌍의 키를 준비한다. 내 컴퓨터가 준비한 키 쌍을 각각 공개키 A와 비밀키 a라고 하자.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주는데 사용하고 비밀키 a는 내 컴퓨터에만 보관한다. 공개키 A로 암호화된 정보는 오직 비밀키 a가 있어야만 해독되어 원래의 정보로 만들 수 있으며, 공개키 A를 가지고도 해독될 수 없다. 따라서 비밀키 a만 내 컴퓨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 알려 주어도 무방하다.

이제 인터넷 서점 ‘책마을’에 접속하여 책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책마을 컴퓨터가 공개키 B와 비밀키 b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컴퓨터가 책마을 컴퓨터에 접속하자마자 두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공개키를 교환한다. 즉 내 컴퓨터는 B를, 책마을 컴퓨터는 A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책을 주문하기 위해서 신용 카드 정보를 내 컴퓨터에 입력하면 내 컴퓨터는 이것을 책마을 컴퓨터의 공개키 B로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정보를 자신의 비밀키 b로 해독하여 원래의 신용 카드 정보를 얻는다. 공개키 B로 암호화하여 보내진 정보는 비밀키 b를 갖고 있는 책마을 컴퓨터만 해독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내 신용 카드 정보를 해독하기는 불가능하다.

- ①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끼리는 공통의 비밀키를 사용한다.
- ②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보내는 정보는 비밀키로 해독될 수 없다.
- ④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끼리는 상대방 컴퓨터의 비밀키를 모르고 있다.
- ⑤ 공개키로 암호화된 정보는 암호화에 사용된 공개키를 알면 해독될 수 있다.

## 051131 #Binary Opposition #Influe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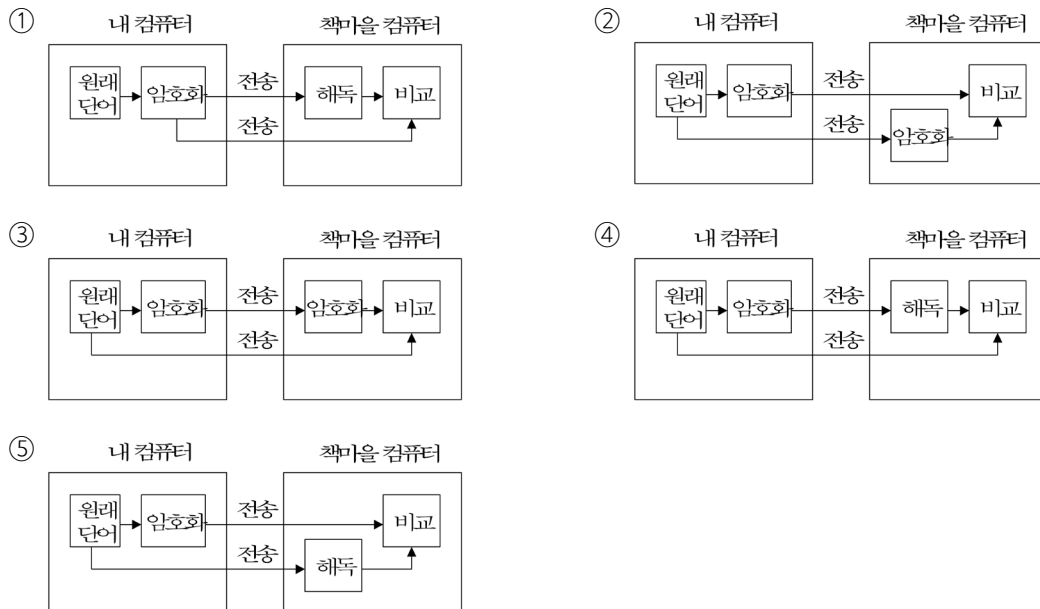
[A]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면,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언론이 야간 범죄의 위험성을 보도하니까 아무도 문밖으로 나오지 않더라.

내 컴퓨터의 공개키 A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인 척하고 자기 컴퓨터에서 공개키 A를 알려주고 책을 주문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마을 컴퓨터가 받고 있는 정보의 송신자가 내 컴퓨터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책마을 컴퓨터는 내 컴퓨터에 ‘책마을만세’와 같은 임의의 단어를 보내면서 이 단어를 내 컴퓨터의 비밀키 a로 암호화한 후, 원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는 비밀키 a로 암호화된 정보가 공개키 A로만 해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 컴퓨터는 원래의 단어와 암호화된 단어를 함께 전송하고, 이 두 정보를 전송 받은 책마을 컴퓨터는 암호화된 단어를 공개키 A로 해독한 후에 전송 받은 원래 단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들이 일치한다면 공개키 A를 가진 컴퓨터(내 컴퓨터)가 보낸 정보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내용을 그림으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Mini Quiz** 160916~18

해시 함수는 데이터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가령, 상호 간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전자 문서와 그 문서의 해시 값을 함께 전송하면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 문서에 동일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결과 값을 얻은 뒤 전송받은 해시 값과 비교함으로써 문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051127 #OX #SWK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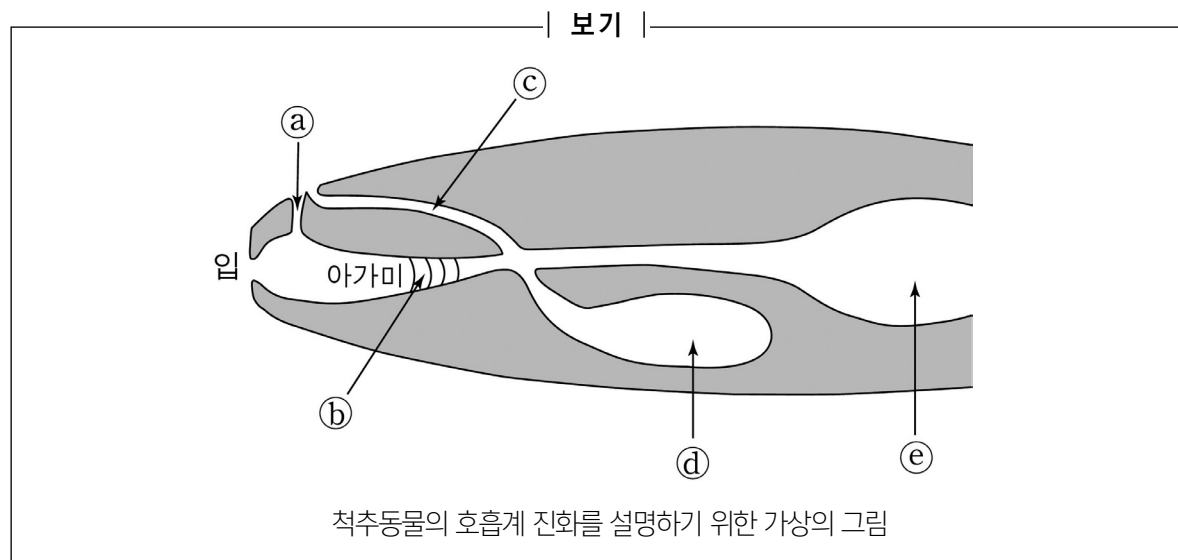
진화는 반드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가 선택되지만, 그 구조는 기존의 구조를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낸 최상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진화는 불가피하게 타협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순간순간의 필요에 대응한 결과가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인간은 진화 단계의 최정점에 있는 동물답게 호흡계 구조가 이상적이군.
- ③ 진화가 항상 완전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군.
- ④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체내의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 호흡계의 발달이 필요했겠군.
- ⑤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진화한다는 것이 때로는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하는군.

## 051125 #Criteria #O—O

바다 속에 서식했던 척추동물의 조상형 동물들은 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물 속의 미생물을 걸러 먹었다. 이들은 몸집이 아주 작아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몸 깊숙한 곳까지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호흡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몸집이 커지면서 먹이를 거르던 체와 같은 구조가 호흡 기능까지 갖게 되어 마침내 아가미 형태로 변형되었다. 즉, 소화계의 일부가 호흡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 후 호흡계의 일부가 변형되어 허파로 발달하고, 그 허파는 위장으로 이어지는 식도 아래쪽으로 뻗어 나갔다. 한편,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는 콧구멍에서 입천장을 뚫고 들어가 입과 아가미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폐어(肺魚) 단계의 호흡계 구조이다.

윗글에 따라, '폐어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호흡계 구조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060620~23 #정상적

많은 성인들은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성인 문화에 비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 문화가 생산적 노동 관습에 순응하고 책임감을 갖는 데 비해, 청소년 문화는 소비에 열중하고 쾌락 추구적이며 기존 가치를 거부하려는 무책임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청소년을 경계에 놓인 존재이자 '정상적인' 문화로 계도해 가야 할 대상이라고 여긴다. 반면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그 나름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사는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의 문화도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060620~23 #OX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나 관리가 아닌 지지와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051135 #Modal Logic #Conditional

[A]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A]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도가 곧바로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 혁신 과정에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필킹턴 사 경영진이 플로트 공정의 총개발비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기술 혁신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필킹턴 경(卿)의 회고는 이를 잘 보여 준다.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의 즉각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엄청난 투자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 ① 플로트 공정 활용이 곧바로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과다한 투자비 때문이다.
- ② 플로트 공정이 개발되자 필킹턴 사는 곧바로 기존의 공정을 플로트 공정으로 교체했다.
- ③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 개발비를 회수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 ④ 기술 혁신 비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필킹턴 사는 아마 플로트 공정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필킹턴 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유리 제조 공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플로트 공정을 개발했을 것이다.

## 051152~55 #Classic #Problem&Solution #Generalization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해결책은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손가락을 베었을 때 느끼는 아픔을 “아야!”라는 말이나 움츠리는 행동을 통해 나타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하리라 전제하고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 친구도 나와 같은 아픔을 느꼈겠군.’ 하고 추론한다. 말이나 행동의 동일성이 느낌의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의 결정적인 단점은 내가 아는 단 하나의 사례, 곧 나의 경험에만 의지하여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 ■ 051152~55 #해소

일부 철학자와 심리학자는 아예 ‘느낌’을 ‘관찰할 수 있는 모습과 행동 바로 그것’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행동 너머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느낌을 행동과 같다고 정의해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해소인 것처럼 보인다.

## ■ 051147 #SWK #음절문자 #음운문자 #변별적자질 +101130~31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이다.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 기억하기가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훨씬 적으며,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는 표음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표음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음절 문자와, 더 나아가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음운 문자로 다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에는 일본의 가나가, 음운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이 있다.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음운 문자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점,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字形)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과 ‘ㄷ, ㅌ’에서 추가된 획은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질 문자’란 명칭은 자질 자체를 글자로 만든 것에 붙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거셈’이라는 자질이 자형에 반영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자질이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글을 완전한 의미의 자질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도토리]’라는 발음을 적어 보았다. 알맞은 것은?

—| 보기 |—

-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할 것.
- 모아쓰기를 할 것.

① □□△

② □◇◇

③ ㄹㅌㅌㅌ

④ ㄹㅌㅌㅌ

⑤ ㄹㅌㅌㅌ

## ■ 051144 #SWK #음차 #훈차

④ 한자는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한다.

→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 ■ 051128 #Exception #Influencer

④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선거 결과와 항상 관련 없는 것은 아니었다.

➡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록펠러 후보를 지지해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 ■ 961129 #Exception

전통적인 어원 연구는 ㉠몇몇 예외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 어쭙지않은 한자(漢字)의 지식에 기댄 것이었다.

➡ ① ㉠ : 전통적인 어원 연구에서도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다.

## ■ 060628 #Comparison

⑤ 분청사기는 상감청자를 계승하였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기법을 획득했다.

➡ 고려 말 퇴락해 가던 상감청자의 뒤를 이어 등장한 분청사기는 조선 중기 이전까지 널리 쓰였다.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서는 가장 순박하고 서민적이며, 일상의 생활 용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술적 조형미도 매우 뛰어나다.

## ■ 060633~36 #Necessary Condition

오늘날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공론장(公論場)이라는 용어는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개된 담론의 장(場)을 말한다. 즉 사회적 의제(議題)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건전한 여론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장이란 뜻이다. 이러한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 ■ 060942~45 #Dilemma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옳은가 환경적 설명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이런 설명들이 평등이라는 이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유전적 설명이 그른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차에 근거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 간의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의 원칙을 거부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 설명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그 시도 자체에 반대할 경우, 뜻밖에도 유전적 증거들이 확인된다면 아주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해서 그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 060633~36 #SWK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중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전락시켜 합리적 판단과 비판적 의견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에 의하면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중에게 자신들이 공적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수용자로 계속 남아 있게 한다는 것이다.

## 060638 #Contradiction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에 따라 엔진은 무거워진다.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하여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가벼운 엔진을 장착하면 출력의 한계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키기 어렵다.

— | 보기 | —

속도의 향상에는 가 서로 충돌한다.

## 060937 #OX #Influencer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케인스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다.

② 직관은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않는다는

④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 060642~45 #SWK

성차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차이는 오직 평균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남성의 공간 지각 능력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유전적 가설까지도 여성의 1/4이 남성의 절반 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남성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적 설명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너는 여자니까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든지 너는 남자니까 아기를 돌볼 수 없다든지 하는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 각각을 하나의 개별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성차가 유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렇다. 하물며 단순히 편견에 의존해서 집단 간에 차이를 부여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 060651 #Process #Paraphrasing #SWK

② 배경 지식은 과학적 가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

➡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한다. 먼저 현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에 직면한다. 의문은 설명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사전 지식에 기초하여 잠정적 설명을 창안한다. 그 후, 잠정적 설명에 대한 검증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잠정적 설명들로부터 연역된 결과들과 비교한다. 만일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며,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순환적 과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이때 가설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검증 가능성을 설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060924 #Definition

ㄴ. 어려운 용어를 풀어 써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이들 대부분을 홍문관(弘文館)의 관직을 겸하게 함으로써, 이들 중심으로 근시직(近侍職), 즉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관직을 일원화하다시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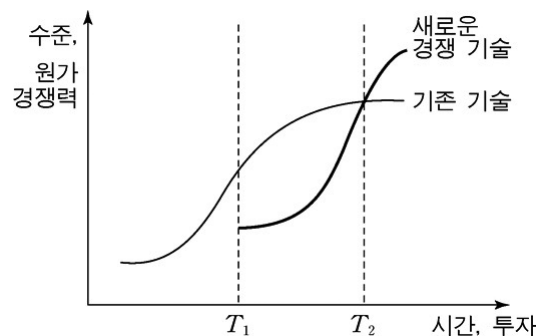
➡ 한편 규장각에는 부속 기관으로 교서관(校書館)이 있어서 서적 출판을 전담하였다. 조선 시대 정부 인쇄소라고 할 수 있는 교서관은 본래 예조 소속이었는데,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국왕의 거처인 창덕궁 가까이로 옮긴 것이다.

## 060926 #Interpreting Graphs

③ 기존 기술과 경쟁 기술의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은  $T_2$  시점부터일 거야.

➡ 경쟁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악한 편이며, 미해결 문제도 많이 남아 있다( $T_1$  부근). 이러한 약점 때문에 기존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경쟁 기술을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들 역시 경쟁 기술의 수준이 떨어지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를 무시한다.

➡ 경쟁 기술은 처음부터 기존의 기술과 전면적으로 대적할 수는 없다. 그 대신 경쟁 기술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선도 사용자를 파고든다.



## ■ 060940~43 #SWK #사은유 #범(pan-)

이른바 사은유(死隱喻)의 대부분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도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바늘귀'라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바늘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영어에도 'eye of a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신체 부분이 화자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것이므로 이를 빌려서 사물을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임을 말해 준다.

## ■ 060938 #SWK #O—O

② 교통사고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 매체에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면,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거나,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이다.

## ■ 941158~60 #SWK

- 우리말에서는 초록, 청색, 남색을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바다', '푸른 하늘' 등의 표현이 그러한 경우로, 우리는 이 다른 색들에 대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다. 사피어와 워프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숲, 바다, 하늘을 한 가지 색깔로 생각하게 된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 어떤 색깔에 해당되는 어휘가 없다고 해서 그 색깔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어휘가 있으면 인식하기가 쉽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겠지만 어휘가 없다고 해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갖고 있지 못할 뿐이거나 말을 잊어서 표현에 곤란을 느낄 뿐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 ■ 060943 #Exception #All&Some #Influencer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청색과 녹색을 '푸르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색채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색채어가 풍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색에 대해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심리 작용이 언어의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②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060953 #Classic #편협

③ 과학철학자 중에는 인과 법칙적 설명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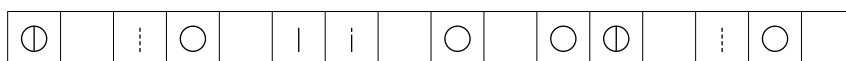
➡ ‘역사적 서술’의 접근은 인과 법칙적 설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논리학, 수학 또는 물리학에서 출발한 고전 과학철학자들은 그것을 아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고전적 관점이 편협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역사적 서술’의 접근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유일하게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060958 #Application

다음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장단과 연주 시간을 나타내면?

가곡의 장단에는 16박(拍)과 10박의 두 가지가 있다. 장단은 장구로 치는데, 북판을 치지 않고 주로 변죽을 쳐 다른 악기들과의 음량을 조절한다. 16박과 10박 모두 10점(點)으로 장단을 친다. 그래서 ‘10점 16박’, ‘10점 10박’ 등으로 일컫는다. 10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에 손이 가서 소리를 내는 타점(打點)이 10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6박과 10박에는 장단의 기본 형태인 덩(㉠), 쿵(○), 덕(ㅣ), 기덕(ㅣ), 더러러(ㅣ) 등이 10번 들어 간다는 말이다.

10점 16박 장단의 보기 (1칸 20~40 빠르기)



10점 10박 장단의 보기 (1칸 75~80 빠르기)



위의 그림에서 10점 16박의 빠르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칸이 서양 음악의 빠르기를 기준해서 20~40이다. 음악의 빠르기는 특정 음표 하나를 1분에 지정하는 수만큼 연주하라는 것이다. 빠르기가 20이라면 1박은 3초가 소요되고, 30이라면 1박은 2초가 된다.

—| 보기 |—

(1칸 60 빠르기)



## 061132 #Metaphor

⑤ (마) : 비유를 통하여 설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외국어는 자국어에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언어 간의 대조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 방식을 돌아켜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투유카 어의 증거법을 이해한 한국인들은 문장 속 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산업화의 정도나 사용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토착민의 언어든 문명국의 언어든 서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언어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언어의 그림’을 보다 객관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061122 #Comparison #Binary Opposition

[A]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사용하는 연료의 특성도 다르다. 디젤 연료인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무겁고 점성이 강하며 증발하는 속도도 느리다. 왜냐하면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 원자가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솔린은 5~10개, 경유는 16~20개의 탄소를 가진 탄화수소들의 혼합물이다. 탄소가 많이 연결된 탄화수소물에 고온의 열을 가하면 탄소 수가 적은 탄화수소물로 분해된다. 한편, 경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1갤런의 경유는 약 1억 5,500만 줄(Joule)\*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솔린은 1억 3,200만 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료의 특성들이 디젤 엔진의 높은 효율과 결합되면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좋은 연비를 내게 되는 것이다.

\* 줄: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

- ① 손으로 만지면 경유보다는 가솔린이 더 끈적끈적할 거야.
- ② 가솔린과 경유를 섞으면 가솔린이 경유 아래로 가라앉을 거야.
- ③ 특별한 공정을 거치면 경유를 가솔린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 ④ 주유할 때 차체에 연료가 묻으면 경유가 가솔린보다 더 빨리 증발할 거야.
- ⑤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면 가솔린이 경유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야.

## 0611335 #만

- ① 오늘날 이글루라는 말은 의미가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다.

⇒ 이글루라는 말은 이러한 주거 시설의 총칭이었으나, 눈으로 만든 집이 외지인의 시선을 끌어 그것만 일컫는 말이 되었다.

## 061133 #Comparison

- ⑤ 투유카어의 '증거법'보다 한국어의 '높임법'이 개별 언어의 고유성을 더 잘 드러낸다.

⇒ 콜롬비아의 토속어인 투유카어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장치가 있다. 화자의 목격 여부가 동시에 형태적으로 표시되는데 그것을 '증거법'이라고 부른다.

dīiga apéwi(그가 축구한 것을 내가 보았다.)

dīiga apéti(그가 축구한 것을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보지 못했다.)

dīiga apéyi(그가 축구한 것을 내가 알지만 보지는 못했다.)

dīiga apéyigi(그가 축구한 것을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dīiga apéhiyi(그가 축구한 것을 나는 짐작했다.)

○ 증거법의 구성 요소 = {wi = 시각적, ti = 비시각적, yi = 명백함, yigi = 전해 들음, hiyi = 짐작함}

## 061135 #물리변화 #화학변화

③ 이누이트는 물의 화학적 변화를 난방에 이용하는 지혜를 지녔다.

➡ 이글루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할까? 이글루 안이 추울 때 이누이트는 바닥에 물을 뿌린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은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은 곧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는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바닥에 뿌려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찬물보다 어는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 061138 #Process #Swap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벽돌집’과 다른 것은?

— | 보기 | —  
‘벽돌집’은 ‘재료 + 대상’의 의미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다.

- |       |        |       |
|-------|--------|-------|
| ① 두부콩 | ② 유리창  | ③ 보리밥 |
| ④ 비단옷 | ⑤ 밀짚모자 |       |

## 061144~47 #SWK

현대 공연 예술의 연출가들은 극적 사건이라는 허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배우의 몸이 겪는 고통과 상처의 느낌을 관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전달하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 연출가들은 오브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일상 생활에서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구·가방·책·옷 등이 무대 위에서는 전혀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어 공연에 시적(詩的)인 특질을 부여하게 된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오브제를 무대 장치에 필요한 소품(小品) 정도로 여겨 온 것과 크게 다르다. 상대적으로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은 이제 마네킹처럼 오브제로 변형되어 존재한다. 기존의 공연 예술의 관습이었던 인간과 사물 사이의 위계질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오브제를 사용하고, 장면들을 자유롭게 뒤엎어 놓음으로써 공연은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제의적(祭儀的), 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현대 공연 예술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표현 주체의 행위와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언어이자, 기승전결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은 현존의 언어가 된다. 이미지의 표면이 이야기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 오브제 : 예술 작품에서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

## 070937 #Intellectual Laziness

③ (다): 우수한 기술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야.

➡ 톨버트의 기법은 현대의 간편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 ■ 0611339 #Analogy

다음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글루의 건축 과정에서 ㉠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글루는 눈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반구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눈 벽돌로 만든 집이 어떻게 얼음집으로 될까? 일단 눈 벽돌로 이글루를 만든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인다.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으면서 벽의 빈틈을 메워 준다. 어느 정도 눈이 녹으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눈벽돌집을 얼음집으로 변하게 한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구조물을 만들었다.

- ① 이글루 안에 피운 불                      ②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                      ③ 얼음벽을 통과한 태양 빛  
④ 불의 열에 의해 융해되는 눈              ⑤ 이글루 안에서 발생한 복사파

## ■ #Suppose That

‘이글루 안에 피운 불’은 눈이 접착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이글루 안에 피운 불’ 자체가 접착제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접착제 구실을 한다면, 눈 벽돌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이어야 하는데,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원 답변자료)

## ■ 061144 #OX #Influencer

⑤ 고정된 대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연출가들은 문자로 쓰인 대본에 의존하기보다는 배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즉흥적인 연출을 시도하였다.

## ■ 061152~55 #SWK #옵션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 ■ 070643~46 #SWK

연상이라는 것이 비록 언어의 규칙 기반적인 다른 측면들처럼 명쾌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해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주로 등위적, 배열적, 상위적, 동의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위적 연결은 ‘나비-나방’처럼 수준이 유사한 단어들과 ‘왼쪽-오른쪽’처럼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배열적 연결은 ‘소금-물’처럼 함께 나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단어들의 연결을, 상위적 연결은 ‘나비-곤충’처럼 하위어와 상위어의 연결을, 동의적 연결은 ‘배고프다-굶주리다’처럼 뜻이 유사한 단어들의 연결을 말한다. 이들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들은 등위적, 배열적 연결 관계에 있는 단어들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것들의 연결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061153 #Symmetry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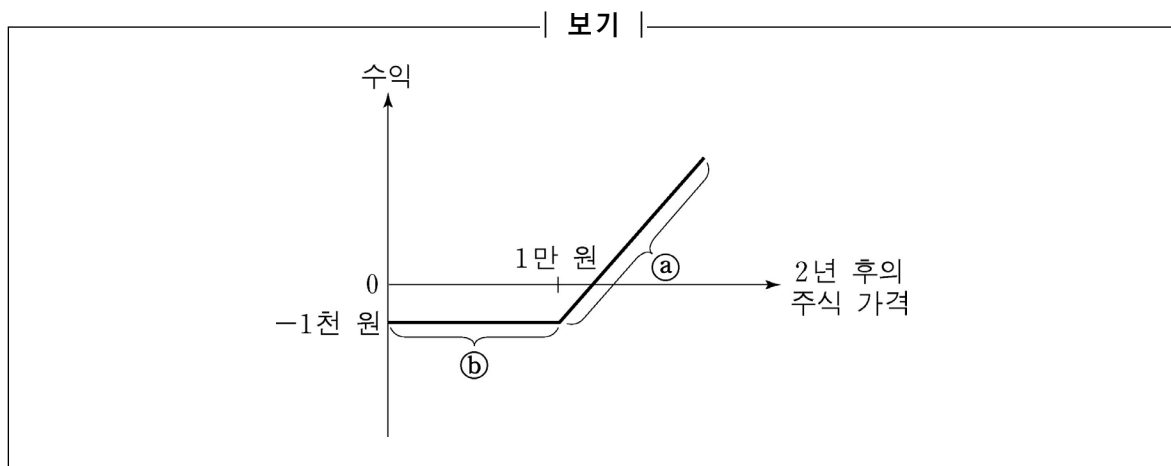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 061154 #Interpreting Graphs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② ㉠은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④ ㉠이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과 ㉡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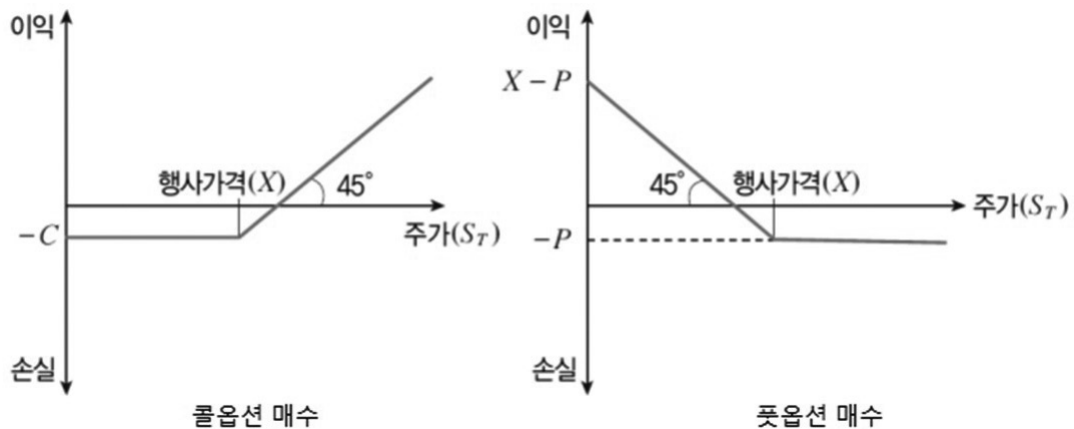
입법18상황23 #옵션

파생상품에서 옵션(option)은 소유자에게 어떤 자산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다. 여기서 해당 자산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정해진 기간을 만기일(expiration date), 정해진 가격을 행사가격(exercise price)이라 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유럽형 옵션의 경우, 콜옵션의 매수자(또는 보유자)는 옵션의 기초자산을 만기일에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콜옵션의 매도자(또는 발행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여야 한다. 콜옵션 매도자는 매수자가 옵션을 행사하면(정해진 가격에 사기를 원하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얼마든 관계없이 행사가격에 기초자산을 매도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풋옵션의 매수자는 옵션의 기초자산을 만기에 행사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풋옵션의 매도자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여야 하고, 풋옵션매도자는 매수자가 옵션을 행사하면(정해진 가격에 팔기를 원하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을 불문하고 행사가격에 해당 자산을 매수하여야 한다.

유럽형 콜옵션과 유럽형 풋옵션을 매수한 경우 옵션의 손익구조는 아래그림과 같다.



위의 그림에서  $C$ 는 콜옵션 매수를 위해 지불하는 콜옵션프리미엄이고 오른쪽 그림에서  $P$ 는 풋옵션 매수를 위해 지불하는 풋옵션프리미엄이다. 콜매수자는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을 보고, 반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본다. 풋매수자는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을 보고, 반면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본다.

070643 #OX

⑤ 반응어는 깊은 사고를 통해 나오므로 머릿속 사전의 연결 방식을 잘 반영한다.

→ 이는 깊이 사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어가 머릿속에서 자극어와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가정에 부합한다.



## ■ 070925 #Comparison

③ 북아메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것이다.

## ■ 070620 #Metaphor

③ 책을 읽는 능력은 공간 텍스트 해독에 도움을 준다.

→ 쇼윈도는 소비 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적 표상 중의 하나이다. 책을 읽기 전에 표지나 목차를 먼저 읽듯이 우리는 쇼윈도를 통해 소비 사회의 공간 텍스트에 입문할 수 있다.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기호학 이론에 따르면 '소비 행위'는 이런 공간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070629 #Paraphrasing

③ 마티스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특정 모티프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 흰 선의 격자 위에 황색의 원과 녹색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미술사학자는 이것을 모로코 사람들이 타일을 깔 바닥 위에 이마를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황색의 원은 터번을 두른 아랍인의 머리가 되고, 녹색의 형태는 아랍 특유의 민소매 긴 옷이 된다. (중략) 반면에 다른 비평가는 '기도하는 모로코 사람들'을 '푸른 잎사귀에 싸인 네 개의 멜론'으로 해석한다.

## ■ 070629 #OX

④ 이 그림이 밝게 보이는 주된 이유는 화가가 즐겨 사용하는 물감의 생생함 때문이다.

→ 야수파 시기의 격렬한 색채의 혁명을 거친 마티스는 화면의 밝음, 풍부함이라는 것은 결코 튜브에 들어 있는 물감 색의 생생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훗날 그는 "하나의 색은 단순한 물감에 불과하다. 두 개의 색이야말로 화음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마티스에게 색채의 비밀은 무엇보다도 그 조화와 울림에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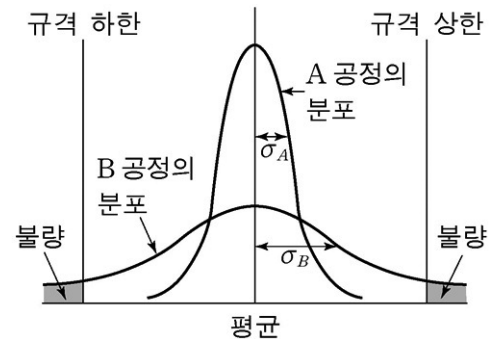
## ■ 070633~36 #SWK #표준편차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시그마( $\sigma$ )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070633 #Most #Modal Logic

②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 오른편의 그림처럼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 ➡ 현장에서는 기계나 원자재의 특성, 작업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하여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대략  $\pm 1.5$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070633 #Or&And

⑤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공정은 6시그마 상태에 있다.

- ➡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 ➡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09이해24(예비) #Or&And

② 무관심은 존중하는 가치를 인식하지 않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 생겨난다.

- ➡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것은 곧 '무관심'의 경험이다.

## 070648 #Presupposition

㉠의 추론 과정에 생략되어 있는 전제는?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②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 070650 #Intellectual Laziness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평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 070636 #O—O #Metaphor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10억 개 중에서 2개만이 불량인 것으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것이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할 때, 강사가 <보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 보기 | —

시그마 수준	면적	비용	시간	거리
3시그마	동네 슈퍼마켓	270만 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5개월 100년	미국 대륙 횡단 거리
4시그마	가정집 거실	63,00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2.5일 100년	고속도로 45분 거리
5시그마	공중전화 박스	570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30분 100년	가까운 주유소 까지의 거리
6시그마	다이아몬드 반지 알	2원의 부채 10억 원의 자산	6초 100년	네 걸음

- ① 시그마 수준에 따른 규격의 변화
- ② 시그마 수준에 따른 불량률의 크기
- ③ 시그마 수준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장소
- ④ 시그마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정의 분류
- ⑤ 시그마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 070647~51 #Binary Opposition #SWK #=&≠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빚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070647~51

## 070658 #Application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sup>1)</sup>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 맥놀이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Hz(헤르츠)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샤이블러의 실험에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가 필요했다. 그는 어떤 건반악기의 A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굽쇠와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굽쇠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가 4Hz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보다 4Hz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샤이블러는 좀 더 큰 3번 소리굽쇠를 만들어서 2번 소리굽쇠와 함께 울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놀이가 일어나도록 조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8Hz만큼 낮은 진동수의 음을 내게 되었다. 샤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굽쇠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다. 샤이블러는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4\text{Hz} \times 55$ , 즉 220Hz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이고 그 차이는 220Hz이므로,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Hz,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220Hz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샤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굽쇠가 2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 실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기 |

- ㄱ.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 ㄴ.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220Hz일 것이다.
- ㄷ.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50개일 것이다.

## 070922 #Before&After

② 주시경이 국어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까닭은 서구 언어학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겠구나.

➡ 주시경은 단어를 뜻하는 ‘씨’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하면서 여기에 ‘늦씨’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컨대 ‘해바라기’를 ‘해바라기’, ‘이더라’를 ‘이^더라’처럼 늦씨 단위로 분석했다. 이는 그가 오늘날 ‘형태소’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1930년대에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1) 최초의 충격음은 300Hz의 고주파여서 우리 귀에 거슬리는데, 그 소리가 음관을 통해서 빠르게 종 밖으로 빠져 나가지요. 그러고 나면 64Hz 부근의 다른 소리들이 서로 간섭해 강약을 반복하는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 귀에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여운이 남게 됩니다.<sup>060902</sup>

## 070926 #Criteria

윗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아이슬란드는 어떤 판 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 아이슬란드는 북아메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선인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다. /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분이 해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인 아이슬란드는 서쪽은 북아메리카 판, 동쪽은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어 지리적으로는 한 나라이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판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 070936 #OX

④		다게레오타입	칼로타입
	영상의 특징	정밀한 세부 묘사	다양한 중간색

→ 명암의 차이가 심하고 중간색이 거의 없었던 칼로타입은 초상 사진보다는 풍경·정물 사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 070939~43 #Binary Opposition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후(後) 채택 이론(post-adoption theory)’에 따르면, 정보 격차는 다차원으로 존재하며 지속된다. 저렴한 디지털 매체의 보급과 함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로 정보 격차를 설명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보 격차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 070660 #다의어 #반의관계

㉠, ㉡, ㉢의 의미 관계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런 배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단단하다	← 반의 관계 →	약하다	← 반의 관계 → 세다

- ① 어리다 ↔ 젊다 ↔ 늙다      ② 나쁘다 ↔ 좋다 ↔ 싫다      ③ 받다 ↔ 주다 ↔ 빼앗다  
 ④ 밉다 ↔ 곱다 ↔ 거칠다      ⑤ 밀다 ↔ 당기다 ↔ 늦추다

## 070943 #다의어 #반의관계

㉠는 <보기>에서 보듯이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과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이 다르다.

보기		
	‘기본적 의미’의 반대말	‘확장된 의미’의 반대말
떨어지다	올라가다	(설득력이) 떨어지다 ↔ (설득력이) [높다]

## ■ 140615 #다의어

**바라다<sup>1</sup>** {바라, 바라니}동 【…을】

- ㉠【-기를】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다.

**바래다<sup>1</sup>**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동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한다.
- ㉡【…을】별을 찌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바라다<sup>1</sup>과 바래다<sup>1</sup>은 모두 다의어이다.

## ■ 140913 #다의어

**갈-리다<sup>1</sup>** 동 ㉠ '갈다1 ㉠'의 피동사. ㉡ '갈다1 ㉡'의 피동사.

㉠ '갈-리다<sup>1</sup>'을 보니, '갈다<sup>1</sup>'은 다의어이겠군.

## ■ 160613 #다의어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중심적 의미가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어 다의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일례로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이다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 여름이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한다.

(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가)의 '홍수'는 중심적 의미로, (나)의 '홍수'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 171111 #다의어

학 생 :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 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다. 이는 본래 ㉠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 생 :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201111~12 #다의어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 ■ 181114 #다의어

	개정 전	개정 후
㉠	굽다 (㉠)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른다. : 「9」 .....	굽다 (㉠) 「1」 손톱이나 뾰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른다.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 ■ 071124 #Process #Exception

㉠ 클라크의 산업 분류는 기술 진보의 정도를 반영한다.

➡ 일찍이 경제학자 클라크는 산업을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거나 생산하는가, 그 원료를 가공하는가, 가공된 원료를 유통하는가에 따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가령,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정보 통신 산업은 어디에 속할까? 이처럼 기술이 진보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해졌고, 실제로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 ■ 071147 #Swap

㉠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함

➡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그린의 스키아파렐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우선 스키아파렐리는 전문 천문학자였지만 화성 관측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그는 마테이라 섬보다 대기의 투명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천문대에서 관측을 했고, 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8인치 반사 망원경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에 특징만을 스케치하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그것을 정교화했으며, 자신만의 관측을 토대로 지도를 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승리는 스키아파렐리에게 돌아갔다. 그가 천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천문학자였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형을 지도에 그려 넣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스키아파렐리의 지도는 지리학의 채색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린의 지도보다 호소력이 강했다.

## 071149 #Sw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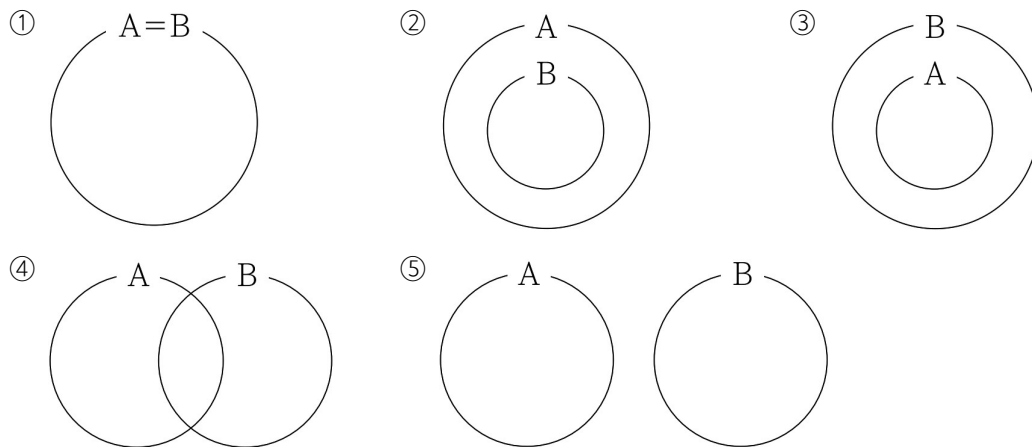
④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 차이로 인해 과학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군.

## 070951 #Analog&Digital #Imagine That

20세기 들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 보자. 곧 반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아니다.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제한 시간에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 가다 보면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한다.

[A]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게임은 본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사이의 유사성에 의해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경우 발견되는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이라 부르기로 해 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와 나와 동생의 외양은 이런저런 면에서 서로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공통적으로 닮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비슷한 예로 실을 꼬아 만든 밧줄은 그 밧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실들의 연속된 연계를 통해 구성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 전혀 만나지 않는 실들도 같은 밧줄 속의 실일 수 있다.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임'(A)과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070958 #Paraphrasing

㉔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㉕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 “진실로 기운을 내고 떨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니, 어찌 홀로하지 않으랴!”



## ■ 1406(A)17~20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④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⑥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썩으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썩’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중략)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 ■ 220622~25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은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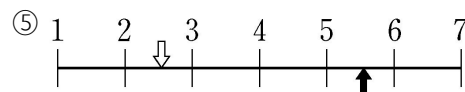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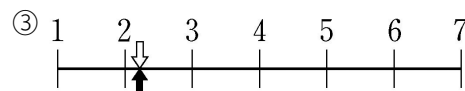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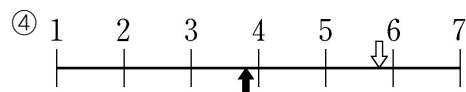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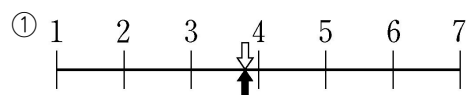
디키의 제도론은,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한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 071121 #Imagine That #Influencer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슨은 '제3자 효과'라고 하였다.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 중, 제3자 효과가 나타난 것은?



—| 일러두기 |—

( ↓:자신 ↑:타인)

1: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7:영향을 많이 받는다.

## 071138 #㉠ #Form&Content

④ ㉠과 ㉡은 그리는 방식이 주제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 사물의 이미지와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근본주의 회화』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제나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그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
- ➡ ㉡『파광!』에서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에서 흔히 보는 공중전 장면을 4미터가 넘는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하고, 색도 더욱 장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 071157 #Swap #Influencer

② 언어의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 ➡ 언어가 이처럼 대규모로 소멸하는 원인은 중첩적이다.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가 파괴되고, 종족 말살과 동화(同化)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 외에 '문화적 신경가스'라고 불리는 전자 매체가 확산되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 071133 #ㄷ #Influencer #Binary Opposition #SWK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중략)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 $2+3=5$ ’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 $2+3=5$ ’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 ④ 경험적 지식은 표상적 지식의 일종이다.
- ⑤ 감각 경험의 사례를 근거로 선험적 지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 071159 #ㄷ #ㄷ

영어에는 1인칭 복수로 we 한 가지만 있으나, 자이세 어에서는 청자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náy와 níy로 구별되고, 체로키 어에서는 ‘화자+청자’를 가리키느냐 ‘화자+제3자’, ‘화자+복수의 타인’, ‘화자+청자+복수의 타인’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 180913 #ㄷ #ㄷ

수빈 :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는데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우리끼리 가지, 뭐.  
 나경 :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우리 다 같이 가자.

## 141114 #ㄷ

선생님 : (가르치는 학생에게)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 071135 #Presupposition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 ■ 080620 #Swap #Influencer #SWK #외부성

㉠이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 ② 프로 경기 식전 행사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하면 관중이 크게 늘어 참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 ■ 080926 #DLB #의하여 #위하여

④ [A]는 검증된 이론에 기초해 제작되었고, [B]는 특정 이론의 검증을 위해 제작되었다.

### ■ 080917 #SWK

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ㄴ, ㄹ, ㅇ’과 같은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 ■ 100617 #SWK

- ① 언어 지도를 보면 김소월 시에 있는 토속적 어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언어 지도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 ■ 100622 #SWK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청력 측정을 할 경우

➡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이다.

## ■ 080627~29 #∞

반사되어 압전 변환기로 돌아오는 초음파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밀도와 두께가 클수록 약해진다.

## ■ 0806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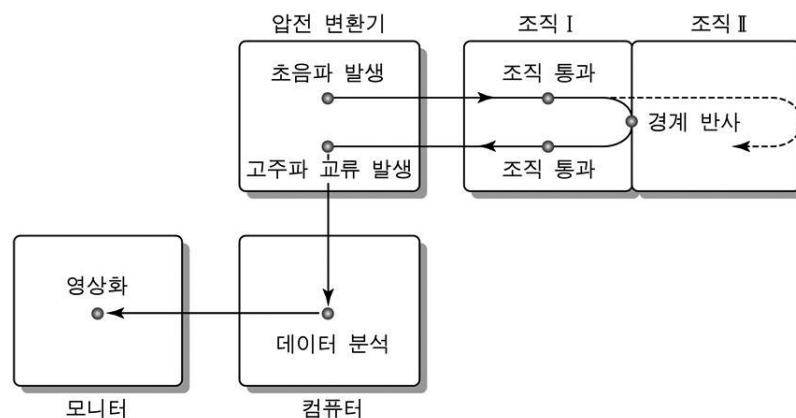
⑤ 성능 좋은 초음파 진단 장치일수록 긴 파장의 음파를 사용하겠구나.

➡ 인체를 진단하는 도구로 초음파를 사용하게 된 것은, 그것이 짧은 파장을 가지므로 투과성이 강하고 직진성이 탁월할 뿐 아니라 미세한 구조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 ■ 080628 #Imagine That #O—O #SWK #압전효과

이 진단 장치에는 초음파를 만들어 내고 감지하기 위한 압전(壓電) 변환기라는 특수한 장치가 있다. 압전 변환기의 핵심 부품인 압전 소자는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압전 효과라고 한다. 초음파를 압전 소자에 가해 주면 압전 소자에 미치는 공기의 압력이 변하면서 압전 효과로 인해 고주파 교류가 발생한다. 역으로 높은 진동수의 교류 전압을 압전 소자에 걸어 주면 압전 소자가 주기적으로 신축하면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역압전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압전 소자는 압전 변환기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압전 변환기는 마이크와 스피커의 역할을 모두 하는 셈이다.

그림은 초음파 진단 장치의 작동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나타나는 단계는?



① 초음파 발생

② 경계 반사

③ 고주파 교류 발생

④ 데이터 분석

⑤ 영상화

## 080635 #Criticism #Criticism #OX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 성품의 탁월함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한두 번 관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늘 관대한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관대함에 관하여 성품의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기 |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도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 또는 성향이 행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인 행위는 아닌 것이다.

- ①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행위는 행위자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20이해24 #Imagine That

우리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언제나 우선적이어서 여타의 모든 가치들의 조건을 이루는 선의지라는 개념이 있다. 이 선의지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도덕적 의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된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런 행위들이 이런저런 의도에는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행위는 의무와 충돌하므로, 과연 그 행위들이 '의무에서 비롯하는' 것일 수 있느냐는 물음이 이 행위 자체에서 아예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는 어떤 조건도 없이 오로지 당위(當爲)에 의거한 행위이다.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와 구별하는 것은 쉽다. 이와 달리 '의무에 맞는' 행위를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와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의무에 맞는 행위를 유발하는 동인은 다양해서, 어떤 것은 행위자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것은 사랑이나 동정심 등의 감정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②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③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④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와 유발 동인이 동일할 수도 있다.  
 ⑤ 의무에서 비롯하는 행위는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와 달리 이성적 존재자의 선의지에 따른다.

## 080638 #Presupposition

심해 열수구 지역의 우점종은 '리프티아'라고 불리는 커다란 관벌레인데, 매우 독특하게 진화된 영양 방식을 갖고 있어서 입이나 소화 기관이 없다. 그 대신에 관벌레는 '영양체(trophosome)'라고 불리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균이 가득 차 있다. 리프티아의 몸통은 기다란 관의 안쪽에 들어 있다. 관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밝고 붉은색의 깃털구조는 아가미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산소, 그리고 황화수소를 교환한다. ㉡관벌레의 순환계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고, 순환계 속의 혈액은 황화수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관벌레는 황화수소를 세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 세균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관벌레에게 먹이가 될 유기물을 공급하며, 관벌레는 세균이 필요로 하는 황화수소를 비롯한 무기물을 공급한다.

㉠과 ㉡의 관계가 나타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갑각류의 일종인 등각류의 일부 종들은 산호초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의 표피에 붙어서 그 체액을 빨아 먹고 산다.
- ㉡ 열대 산호초에 사는 놀래기는 곰치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찌꺼기나 곰치의 표피에 있는 기생충을 먹고 산다.

## 080639 #SWK

윗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기>의 천문학자가 ㉠와 같이 추론했다고 할 때, 이 추론의 개연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증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Mini Knowledge 강화(개연성 ↑)

일반화 : 표본이 많을수록, 표본이 대표성이 있을수록(편향되지 않았을수록)

유비추론 : 표본이 많을수록, 유사성이 많을수록/다양할수록, 관련성이 클수록

## 080640~42 #SWK #공시적 #통시적

소쉬르에 따르면, **공시태**는 위 그림에서 가로축에 해당한다. 공시태는 공존하는 사항 간의 관계를 말하는 동시성의 축이며, 시간의 어떠한 개입도 배제된 정적인 언어 상태이다(A시대, B시대). **통시태**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다(A시대 → B시대).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말은 현상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언어학자의 방법론이나 관점을 말하기도 한다. 공시적 연구는 언어의 한 상태를 고찰하는 것이고, 통시적 연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을 고찰하는 것이다.

## ■ 080648 #Criticism #OX #Form&Content

톨스토이와 콜링우드 양자의 입장은 차이가 나지만, 양자 모두 예술과 감정의 긍정적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였으며, 이들의 이론은 특히 질풍처럼 몰아치고 노도처럼 격동했던 낭만주의 예술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기 |

음악의 아름다움이란 음악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내용도 필요치 않고, 오직 독립적인 음들 및 그것들의 형식적 연관으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곧 음악적 아름다움이다. 매력 넘치는 소리들의 연관, 그 연관의 조화와 대립, 이탈과 도달, 상승과 소멸 등이야말로 우리 앞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타나 만족을 주는 것들이다.

- ① 예술의 본질은 감정보다는 형식이다. 우리에게 미적 즐거움을 주는 원천은 예술 고유의 조형적 아름다움이지 않은가.
- ② 예술이 감정을 전달하려면 감정의 전달 수단인 형식도 중요하다. 아름다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치적 선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 ③ 예술은 감정이 아닌 절대적 이념의 표현이다. 예술과 감정의 연관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예술이 지닌 숭고한 정신적 이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 ④ 용솟음치는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감정이 정형화된 형식을 넘어 예술을 통해 자유로이 분출됨으로써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 ⑤ 예술의 핵심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파란만장한 인간 삶의 형식을 묘사하는 일이다. 그러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 ■ 080917 #=&≠

- ③언어마다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은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 ⇒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말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 ■ 080926 #DLB #OX

- ③ 로버츠의 'NMR 분광계'는 대상의 존재 여부를, 웨버의 '중력파 검출기'는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 ■ 080918 #Analogy

- ② 갓난아이와 침팬지가 다양한 모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을 것이다.
- ③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성할 수 없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에 기인할 것이다.
- 인간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다양한 말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 인간의 후두는 갓난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나 오랑우탄의 후두는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점이다. // 후두의 위치는 모음의 발음 및 분화와 직접 관계된다.

## ■ 080927 #Influencer

- ③ 새로운 연구 방법의 도입이 새로운 세부 연구 분야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구나.
- 로버츠와 제조사의 노력으로, 1960년과 1961년 사이에 NMR에 바탕을 둔 학술 논문의 출판이 네 배로 증가하는 등, NMR 분광계를 사용한 연구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기 화학 분야의 첨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구입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NMR 분광학은 유기 화학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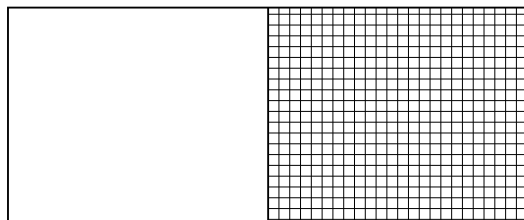
## ■ 081124 #Influencer

- ④ 새로운 기술 영역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 기술이 진보한 결과 새로운 기술 영역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등장한 기술 영역은 신속한 실용화의 요구 때문에 그대로 새로운 산업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 090613 #Necessary Condition #굴절 #SWK

- ③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근에 대상이 있어야 한다.
- 신기루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신기루는 환상이나 눈 속임이 아니라 원래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 //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 밀도가 작는데,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하게 된다.

### Mini Knowledge 굴절



## 090919 #In&Out

④ ㉔ : 사물의 겉과 속 또는 안과 밖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 080934 #Form&Content #SWK

한 떨기 흰 장미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자. 하나의 동일한 대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식물학적 연구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치에 항거하다 죽어 간, 저항 조직 '백장미'의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과 달리 우리는 종종 그저 그 꽃잎의 모양과 순백의 색깔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평소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순간들을 맞는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때에는 철저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인 미적 형식만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어가 '미적 무관심성'이다. 칸트가 이 개념의 대표적인 대변자인데, 그에 따르면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X는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X의 형식적 측면이 우리의 감수성에 쾌·불쾌를 주는 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무관심적 관심'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얻거나 알고자 하는 모든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운 X의 존재 가치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에 있다.

영화에 대한 감상 중, 윗글의 칸트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영화는 그 시대의 모순 고발과 전망 제시라는 두 가지 숙제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 우수작이야.
- ② 영화에 세상일을 개입시키려는 태도는 잘못이야. 영화는 보고 즐기는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니?
- ③ 이 영화의 색채 묘사나 카메라의 시점 처리 같은 대담한 형식 실험은 상식을 뛰어넘은 독특한 심미적 가능성을 열어 줬.
- ④ 이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 난 매우 부정적이야. 주인공만 해도 어른들이나 좋아할 스타일이지, 우리가 보기엔 좀 어색하지 않니?
- ⑤ 영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미 소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영화로 만드는 것은 낭비야.

## ■ 08추론03~05 #SWK

미가 취미에 의해 지각된 것이라면, 취미론자들에게 미는 주관적인 것이 된다. 이는 곧 미가 그것을 지각하는 마음과 어떠한 관계도 없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성질, 곧 대상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되는 성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미의 관념이란 대상의 어떤 특수한 성질을 지각할 때 그 지각으로부터 환기되는 특수한 즐거움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 즐거움이 모두 다 미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즐거움 중에는 우리의 식욕이나 성욕 혹은 소유욕이나 지배욕 등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취미론은 ‘**무관심성(disinterestedness)**’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즉, 이해관계(interest)에서 벗어나 대상을 그 자체로서 지각할 때 얻는 특수한 즐거움이 **무관심적 즐거움**이며, 이것이 곧 미적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취미론을 따르는 한, 미적 판단의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한 기대는 헛된 것이 된다.

취미론의 기본 정신은 후에 미적 태도론으로 계승되는데, 여기에서는 미적 판단의 객관성과 같은 문제는 대두되지 않는다. 취미론보다 훨씬 간단한 구조를 가진 미적 태도론에서는 특수한 감관으로서의 취미나 취미에 반응을 일으키는 특수한 대상과 같은 요소들이 미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태도론자들은 우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각 능력을 일상적 지각과 미적 지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미적 태도론자인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미적 지각은 대상에 대한 **관조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 태도의 특징이 무관심적이라고 한다. 미적 태도론은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 미적 태도를 취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대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 ■ 100945 #SWK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며, 이 의지는 스스로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충동일 뿐이다. 이 충동은 하나가 만족되면 새로운 충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간은 맹목적 충동의 사슬이 불러일으키는 불만족과 갈등에 시달린다. **미적 관조**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인간은 잠시나마 이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 100944 #Warning

③ ㉠ : 실용적, 윤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 혹은 과학적 호기심 등 예술 작품 자체를 향유하려는 것 이외의 관심과 욕구를 말한다.

➡ 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 100944 #Context

최근의 예술적 시도들은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작품의 생성과 전개에 수용자를 참여시킴으로써 ㉠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분명 종래의 예술관에 대한 도전이다. 종래의 예술관은 수용자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을 미적 관조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은 예술 이외의 모든 관심과 욕구로부터 초연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관조적 태도와 함께 예술 작품 자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객체가 됨으로써 이제 예술은 그 어떤 권위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율적 영역이 된다. 이 때문에 종종 예술은 쓸모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모든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 공간으로 승화되기도 한다.

→ ㉡ ㉢ : 수용자가 완결성을 갖는 작품을 변형하면서 이를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 Mini Quiz 1 2 3 4 5 가나다라마

## 080944 #Paraphrasing

㉤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기술 영향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기술 영향 평가는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다음,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080946 #Generalization

통제의 딜레마란, 비록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어떤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통제의 딜레마’로 야기된 상황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은?

- ① 비디오테이프에는 베타 방식과 VHS 방식이 있었다. 기술적으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시장에서는 후자가 선택되었다.
- ② 구소련 체르노빌 핵 발전소에서는 작업자들이 원자로의 기계적 결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방사능이 누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 ③ 홍수 방지를 위한 댐의 규모를 정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규모에 따른 홍수 방지 효과를 잘못 계산하여 결국 홍수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 ④ 개발이 거의 완료된 어떤 청정 에너지 기술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된 까닭에 중단할 수 없었다.
- ⑤ 1986년 미 항공 우주국은 우주선 로켓 부스터의 접합부를 밀폐하는 오 링(O-ring)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허용 범위 이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바람에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模寫)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 그것이 육면체라 판단한다고 하자. 그는 특정 시점  $t_1$ 에서 그것의 특정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1$ 을 획득하고, 특정 시점  $t_2$ 에서 그것의 또 다른 속성을 관찰한 자료  $d_2$ 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관찰을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는 최종 판단 시점  $t_N$ 에서 그때까지 그 사물의 모든 속성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들, 즉  $d_1$ 부터  $d_N$ 까지를 토대로 '이것은 육면체이다.'라고 판단한다. 철수의 관찰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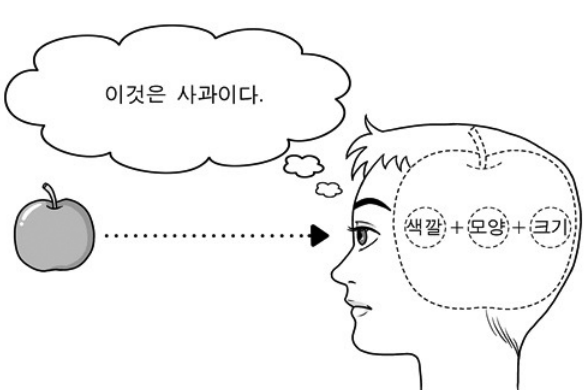
$t_1$	$d_1$
$t_2$	$d_1 + d_2$
$\vdots$	$\vdots$
$t_N$	$d_1 + d_2 + \dots + d_N$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철수'의 사고 과정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떤 것의 속성인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은 뒤, 이 세 개의 관념을 종합하여 '이것은 사과이다.'라고 판단한다.



- ①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 ② 색깔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 ③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 ④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 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 ■ 080948 #Comparison

① 여성들을 대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창업 교육의 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기 때문이겠군.

→ 세계적인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용자를 희망하는 최저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090625 #도량형 #Error

㉠현대 산업 체계에서 도량형의 통일된 표준이 없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대폰 충전기가 모델마다 달라서 호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병원의 체온계마다 측정한 온도가 달라서 오진이 우려된다.
- ③ 건전지 전압이 제조 회사마다 달라서 전자 제품이 고장 난다.
- ④ 생산된 부품들의 치수가 공장마다 달라서 자동차가 고장 난다.
- ⑤ 시계의 시각이 은행마다 달라서 사업자 간에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 ■ 090616 #OX #Quantity #Modal Logic

① 사회가 위험해지면 연민은 많아진다.

→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이런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 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 먼저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비극이 언제든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은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도 높다.

## ■ 090624 #Modal Logic

③ 원자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으므로 표준이 될 수 있다.

➡ 원자 안의 전자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복사선들은 각각 불변하는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0년 제11차 총회는 크립톤이라는 원자에서 나오는 오렌지색 복사선의 파장을 길이의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 그러나 이 정의도 크립톤 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므로 실제로 활용하려면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 ■ 090624 #Modal Logic

⑤ 백금-이리듐 합금은 인공물이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이 될 수 없다.

➡ 1875년에 미터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1889년에 열린 제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안정성 높은 백금-이리듐 합금 막대로 제작된 '미터 원기(原器)'를 새 표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 미터 원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변하거나 훼손될 경우, 원래와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자연 대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복원 가능한 표준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 ■ 090633 # ㄱ #Exception

① 난간의 공판에 살창을 내는 것은 계자 난간의 공통적 요소였겠군.

➡ 민가에서 주로 보이는 보통의 난간이 특별한 장식 없이 널빤지만으로 잇는 소박한 형태였다면, 계자 난간은 공판(穹板)에 궁창(穹窓)을 만들어 잇기도 하고, 때로는 공판 대신에 다양한 모양의 살창을 끼워 한껏 멋을 살리기도 했다.

## ■ 090634 #Contradiction

③ 난간은 안과 밖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안과 밖의 연계이다.

➡ 난간은 원래 사람들의 추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루, 계단, 다리 등에 설치되었다. // 여기에는 장식적 목적도 있었지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물 내부 공간을 시원스럽게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레 바깥 세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도 들어 있다. 여름날 툇마루나 대청마루의 난간 창살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미풍의 감촉도 바로 이러한 난간의 공간 미학적 특징에서 비롯된다.

## ■ 090916~19 #육화

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

## 090626 #Modal Logic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CGPM, 1983).”  
여기서 빛의 속력이 정확한 값으로 고정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속력을 정하려면 이동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지게 마련이므로 측정으로 표준을  
[A] 정하면 값을 확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측정된 빛의 속력은 299 792 458(1.2)m/s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되었는데 여기서 괄호는 측정 불확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에서 빛의 속력은 불확정도가 0인 정확한 값으로 규정된다. 그 대신 길이의 정의에 따라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길이를 정의하게 된 것이다.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속력이 길이의 표준을 결정하게 되었다.
- ② 길이의 측정값은 불확정도가 0이 될 수 없다.
- ③ 빛은 진공에서 1초에 299 792 458미터를 진행한다.
- ④ 시간의 표준이 길이의 표준보다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 ⑤ 빛의 속력은 오차가 0이 되도록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 090934 #Influencer

- ④ 하나의 발화도 상황에 따라 적절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 발화의 적절성 판단은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 100936 #Influencer

- ① 자동분류기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학습은 상호 작용의 정도에 따라 경험하는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 따라 자동분류기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 090934 #Comparison

- ② 예비 조건은 다른 적절성 조건들보다 우선 적용된다.
- ⑤ 적절성 조건을 어긴 발화는 그렇지 않은 발화보다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다



## 090643~45 #Binary Opposition

양측의 실제 부담 비중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 한편,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

## 090641 #SWK

언간은 특정 청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느 자료보다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

자네 여히고 아무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네한테 가고져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네 향히 무으물 초싱 니  
줄 주리 업무스니

(자네 여이고 아무래도 내 살 수가 없으니 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 가소. 자네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줄이 없으니)

위에서 보듯이 아내가 남편한테 '자네'라는 호칭어를 쓰면서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사 '에 게'에 비해 구어적 성격이 강한 '한테'의 옛 형태인 '한디'가 이미 16세기 언간에서부터 쓰이고 있었고, '후여'가 '히'로 축약된 어형이 언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나타나고 있다.

<보기>는 오늘날 편지의 일부이다. 밑글과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자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기 그지없었네. 십 년 전을 떠올리며 자네㉡한테 걸었던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보았네.

- ① ㉠은 오늘날 높임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사용 범위도 제한적이다.
- ② ㉡는 오늘날에도 구어적인 말투에 더 잘 쓰이는 경향이 있다.

## 090642 #경제성

언간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의 효율성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재점)을 이용한 표기이다. ㉠‘총 〃 그만 굿치압’, ‘더옥 〃 근심코 인노라’, ‘너히나 가 보고자 〃 부라노니’, ‘부디 〃 잘 지너여라’, ‘황송 〃 후오이다’에서 재점은 각각 ‘총’, ‘더옥’, ‘보고자’, ‘부디’, ‘황송’을 반복한 것이다.

㉠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언간에 사용된 재점은 글자나 단어가 반복될 때 다시 쓰는 번거로움과 운필(運筆)의 노력을 덜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글쓰이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 ① 총 " 그만 굿치압                      ② 더욱 " 근심코 인노라  
③ 너히나 가 보고자 " 부라노니        ④ 부뒤 " 잘 지너여라                      ⑤ 황송 " 호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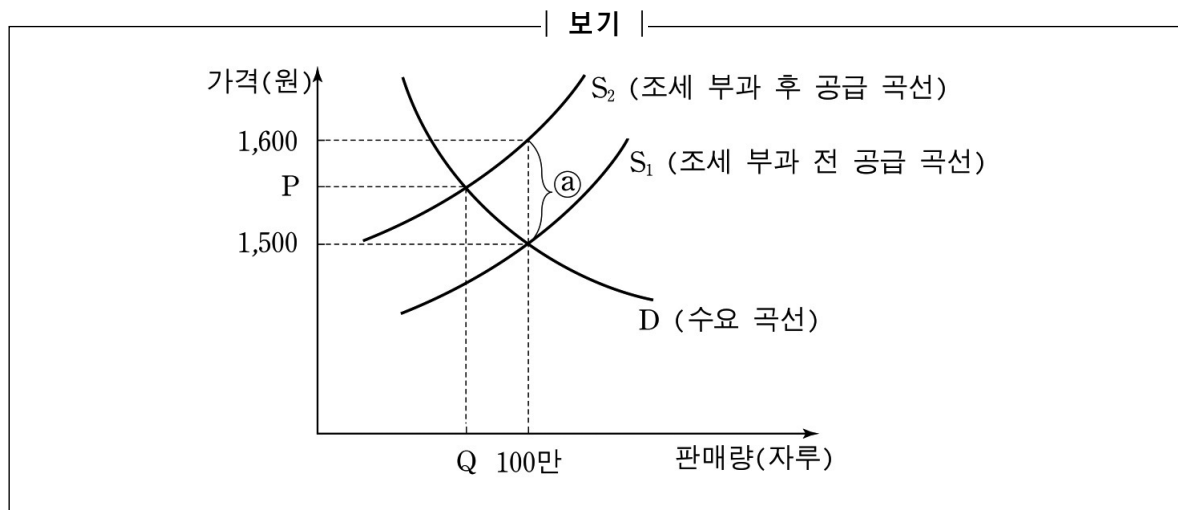
■ 091114 #경제성

㉠ ‘ㄴ’, ‘ㄸ’, ‘ㄹ’은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인데, 인쇄본보다는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

- ㉠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쓰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090644 #Interpreting Graphs #Noticing the Gap #Error

[A]를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조세를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면 공급 곡선  $S_1$ 이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 ■ 090924~26227 #OX

- ① 바쟁이 감독이라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을 자제하려고 하겠구나.
- ③ 바쟁이 감독이라면, 대상을 왜곡할 수 있는 기교를 배제하려고 노력하겠구나.
- ③ 바쟁은 영화가 현실을 의도적으로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 ➡ 바쟁은 형식주의적 기교가 현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침해하여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현실의 참 모습을 변조하는 과도한 편집 기법보다는 단일한 샷\*을 길게 촬영하는 롱 테이크 기법을 지지한다.
- \* 샷: 카메라가 한 번 촬영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연속된 한 화면 단위.

## ■ 090924 #Comparison

- ② 바쟁은 영화가 회화나 사진보다 재현의 완성도가 높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 ➡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 채 대상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이 발휘하는 모사의 신뢰도는 회화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 영화의 등장은 대상의 재현에 또 다른 획을 그었다. 바쟁은 영화를, 사진의 기술적 객관성을 시간 속에서 완성함으로써 대상의 살아 숨 쉬는 재현을 가능케 한 진일보한 예술로 본다.

## ■ 090926 #중심

- ⑤ 화면 속의 중심요소에 주목하게 하여 관객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구나.
- ➡ 바쟁은 또한 전경에서 배경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깊이를 제공하는 촬영을 지지한다. 화면 속에 여러 층을 형성하여 모든 요소를 균등하게 드러냄으로써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관객의 시선에도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190610 #중심

- ① 사극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를 제외하고 사실로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 ➡ 사실로서의 역사와 상상력의 산물로서의 허구라는 두 가지 요소가 사극의 본질이다. 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사극은 자신의 정체성에서 멀어지므로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유지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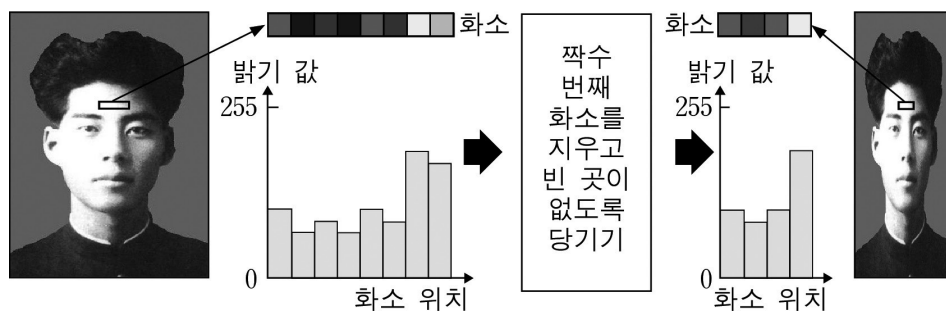
## ■ 170936 #Context #General#Specific #이처럼

- ① 대표 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 ➡ ‘일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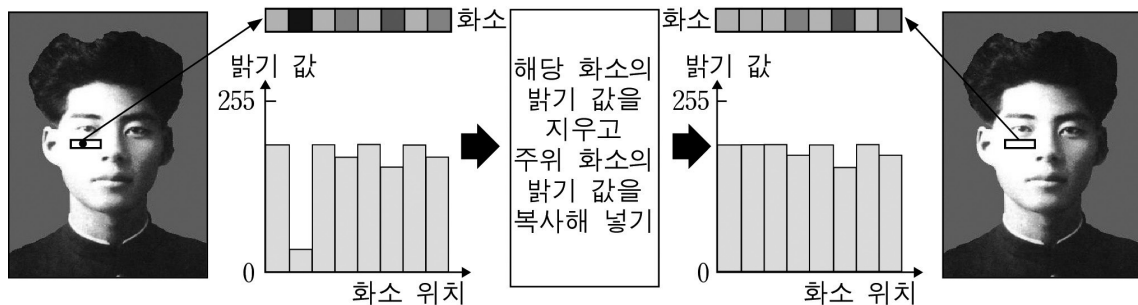
## 090913~15 #SWK #화소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컴퓨터 안에서 영상을 구성하는 점인 수많은 화소의 집합으로 저장되고, 각각의 **화소**는 숫자로 표현된 밝기 값과 색상 값을 가진다. //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8비트 해상도, 즉 0부터 255까지의 밝기 값만 가지는 흑백 영상이 있다고 하자. 이때 밝기 값 0은 완전한 검은색이고 255는 완전한 흰색이 된다. 낱싹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영상의 세로는 그대로 두고 가로로 1/2 크기로 줄이려면 <그림 1>과 같이 홀수 번째 화소는 그대로 두고 짝수 번째 화소를 없앴 다음, 빈 곳이 없도록 왼쪽으로 당기면 된다. 또 검은 점으로 표시된 주근깨를 지우고 싶다면 <그림 2>와 같이 해당 화소의 밝기 값을 지우고, 지운 자리에 주위에 있는 화소의 밝기 값을 복사해 넣는다. 이렇게 하면 주위 화소와 차이가 나던 검은 점이 주위와 똑같은 밝기 값을 가지게 되어 주근깨가 없어진다.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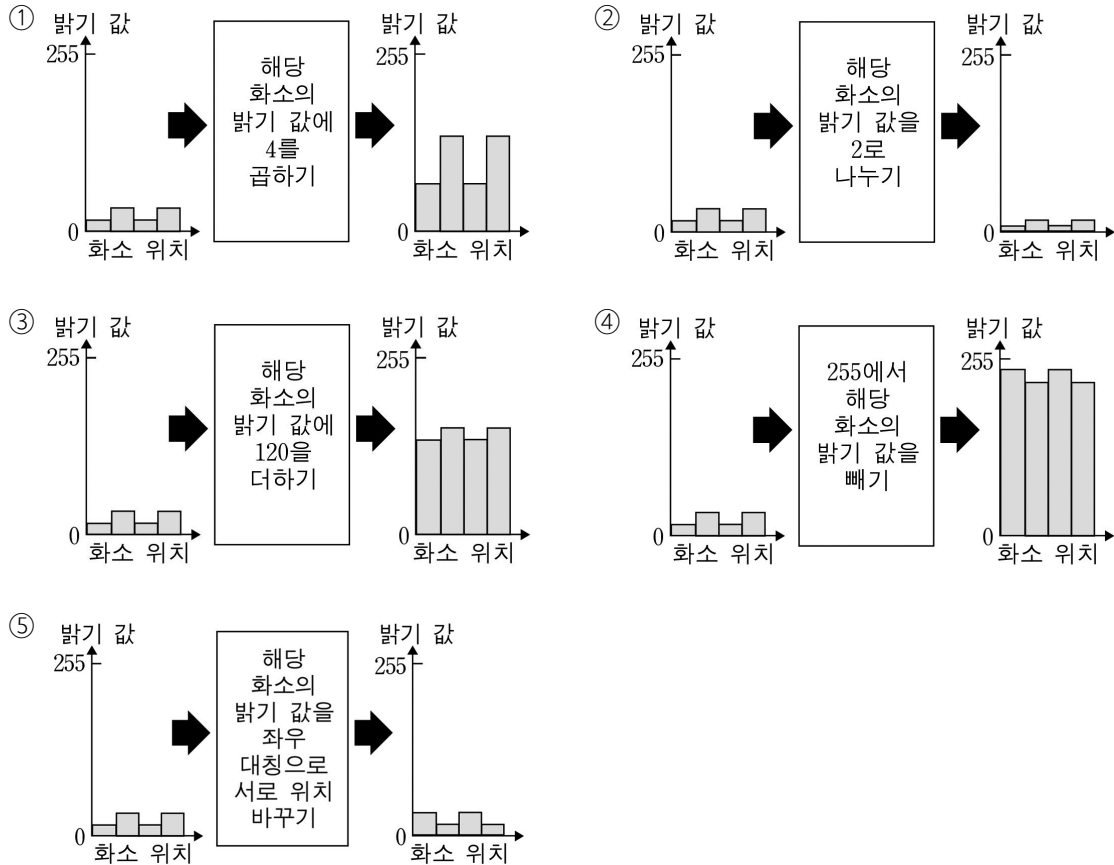


## 151120~22 #SWK #화소

디지털 영상은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하고 각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다. 화소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255일 때 흰색으로 가장 밝다.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 하며 명암 대비가 강할수록 영상은 선명하게 보인다. 해상도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말하며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

㉠칩보 위성이 찍은 어떤 영상은 화소의 밝기 값이 0에 가까워 어둡고, 밝기 값의 차이가 별로 없어 선명하지도 않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밝고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을 수행하는 과정에 가장 적합한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나타낸 것은?



### 100630 #SWK #음운변동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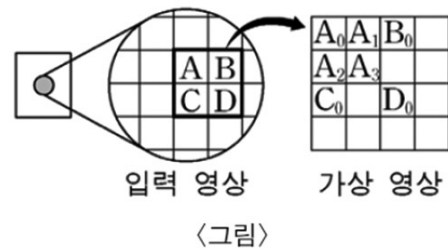
• 음운 변동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 |                              |                                |                               |
|------------------------------|--------------------------------|-------------------------------|
| ㉠ $XaY \rightarrow XbY$ (교체) | ㉡ $XY \rightarrow XaY$ (첨가)    | ㉢ $XabY \rightarrow XcY$ (축약) |
| ㉣ $XaY \rightarrow XY$ (탈락)  | ㉤ $XabY \rightarrow XbaY$ (도치) |                               |

## 151120~22 #Imagine That #Application

$n \times n$ 개의 화소를 가진 입력 영상을 모니터에 나타내면, 모니터에 있는  $n \times n$ 개의 화소에 입력 영상의 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된다. 하지만 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나타낼 때는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에서 영상이 표시될 영역의 화소와 일대일 대응하는 '가상 영상'을 만들고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모두 채운 다음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두 배씩 확대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2n \times 2n$ 의 가상 영상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화소값을 채운다. <그림>처럼 입력 영상의 화소 A의 값을 가상 영상의 A0~A3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사한다. 나머지 화소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입력 영상을 확대한 가상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확대 복사



방법'은 간단하지만 A0~A3 모두가 같은 밝기로 표시되므로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는 '모자이크효과'가 발생한다. 확대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한 방법이 '선형 보간법'이다. 이는 입력 영상의 화소 가운데 A~D는 각각 A0, B0, C0, D0 위치에만 복사하고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채우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A3의 화소값을 A3과 인접한 A0, B0, C0, D0의 평균값으로 채우고, A1은 A0과 B0의 평균값으로, A2는 A0과 C0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빈 화소의 값이 인접 화소의 평균값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인접 화소들 사이의 명암 대비가 약해져서 모자이크 효과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화소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해야 하므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반면,  $n \times n$ 의 영상을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절반으로 축소해서 모니터에 표시하려면  $n/2 \times n/2$ 의 가상 영상을 만들고 화소값을 채운다. 이때 입력 영상의 화소들 중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한 칸씩 건너뛰면서 화소를 선택해 가상 영상의 화소에 복사한다. 이러한 '선택 복사 방법'을 쓰면 입력 영상의 화소 중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이 왜곡되어 보인다. 특히 글자와 같이 가로세로 방향으로 흑백의 영역이 뚜렷이 구별되는 영상의 경우에는 글자 모양이 변한다. 따라서 입력 영상의 인접한 4개의 화소값의 평균값으로 가상 영상의 하나의 화소값을 채우는 '영역 축소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화소값을 평균값으로 채우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강한 영상의 경우 명암 대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 211234~37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 ■ 211234~37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 ■ 210625~28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 ■ 131143~45

사용하는 정보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음소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요한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중략)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그 개수를 늘리면 음소 추정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 ■ 090936 #OX

딸의 생일 선물을 깜빡 잊은 아빠가 ㉠“내일 우리 집보다 더 큰 곰 인형 사 올게.”라고 말했을 때, 아빠가 발화한 문장은 상황에 적절한 발화인가 아닌가?

<보기 1>은 ㉠의 예비 조건이다. ㉠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차례로 반응을 보였다고 할 때, 예비 조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은?

### — | 보기 | —

-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오는 것을 딸이 좋아할 것이라고 아빠가 믿는다.
- 집보다 큰 곰 인형을 사 올 수 있다고 아빠 스스로 믿는다.

### — | 보기 | —

딸(6세) : (샅쭉거리며) 세상에 그렇게 큰 곰 인형이 어딴?  
아들(4세) : (볼멘소리로) 아빠, 나도 사 줘.  
엄마 : (딸의 손을 잡으며) 그럼 아빠한테 예쁜 구두 사 달라고 할까?  
할머니 : (온화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그래, 구두가 좋겠다.  
할아버지 :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선물을 사 주면 우리 아기가 좋아할까?

## ■ 091118 #SWK #조화

앵무조개 껍데기의 무늬는 반복의 미(美)를 보여 준다. 1 : 1.618의 황금 비율로 된 빈 종이도 아름다운데, 이 비율로 된 형태가 크기를 달리하며 반복되면 통일과 변화라는 또 다른 미감이 생긴다. 이런 반복과 변화의 미는, 르네상스의 건축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다. 당시 건축물에서 문과 창이 같은 형태에서는 반복의 미를, 다른 크기에서는 색다른 변화의 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이런 건축물을 세련되게 작곡된 음악에 비유해 '조화'라 불렀다.

## ■ 091126 #Necessary Condition #Dilemma #Before&After

③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이 갖추어져야 창조 환경이 마련된다.

➡ 창조 도시의 주된 동력을 창조 산업으로 볼 것인가 창조 계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창조 산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 // 창조 계층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 //창조성의 근본 동력을 무엇으로 보든, 한 도시가 창조 도시로 성장하려면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을 유인하는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 ■ 091119 #=&≠

이 형식은 악장의 주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사이에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주제들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중 ㉠의 효과와 유사한 것은?

- ①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걸음걸음 치마폭이 너풀거린다.
- ②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대강 급한 일부터 끝내자.
- ③ 가뭄으로 논밭이 바싹바싹 타들어 간다.
- ④ 노랫소리가 멀리멀리 울려 퍼진다.
- ⑤ 공간을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웠다.



## 090942 #Context

과거의 기온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의 산소나 수소의 동위원소비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지만 원자량이 서로 다른 원소를 말하는데, 산소의 동위원소로는 원자량이 16인 산소( $^{16}\text{O}$ )와 원자량이 18인 산소( $^{18}\text{O}$ )가 있다. 남극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들의 산소 동위원소비( $^{18}\text{O}/^{16}\text{O}$ )는 눈으로 내릴 당시의 기온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며 여름과 겨울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증감은 일 년의 주기를 갖는다. 오늘날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산소 동위원소비의 증감은 기온 변화와 거의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여 빙하가 만들어진 당시의 기온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보기 | —

- 과제명 :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 변화 양상
- 조사 대상 : 남극에서 시추한 빙하
- 조사 방법 및 내용
  - 산소 동위원소비 증감의 주기성을 이용한 ㉠ 조사

① 생성 연대

② 오염 정도

③ 평균 강도

④ 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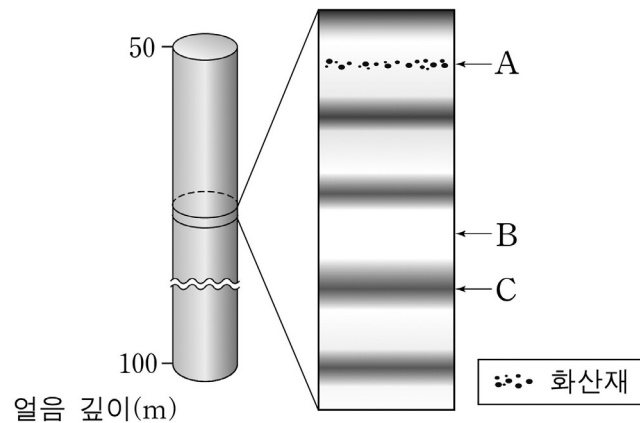
⑤ 전체 부피

빙하에 대한 최근 연구는 산소의 동위원소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농도 변화도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체들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고 반대로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빙하로부터 알게 된 과거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 변화 폭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이들의 농도는 우려할 만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윗글과 <보기>를 이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그림은 시추한 빙하의 일부분과 그것을 확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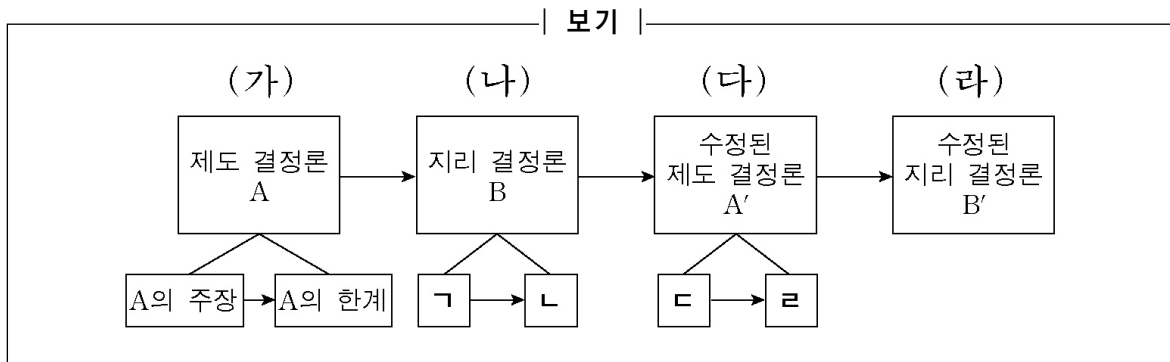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ㄱ. 시추한 빙하에는 화산재가 포함되어 있다.
- ㄴ. 시추한 지점의 표층 부분 눈의 밀도는  $0.3\text{g}/\text{cm}^3$ 이다.
- ㄷ. 산소 동위원소비는 검은 띠 부분에서 증가하고 흰 부분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④ 시추한 빙하의 하부로 갈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 (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도의 발달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해 왔다. 예를 들어 재산권 제도가 발달하면 투자나 혁신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제도의 발달 수준과 소득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나) 그런데 최근에 각국의 소득 수준이 위도나 기후 등의 지리적 조건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통계적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제도와 달리 지리적 조건은 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리적 조건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산성 등과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 (다) 제도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지리적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나라가 예나 지금이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지리적 조건과 소득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러한 '소득 수준의 역전 현상'을 동시에 설명하려면, 제도가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지리적 조건은 제도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리적 조건은 지금의 경제 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리적 조건은 과거에 더 잘 살던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에 불리한 방향으로, 더 못살던 지역에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발달하게 된 '제도의 역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 (라) 이제 지리적 조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간접적인 경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로가 경제 성장에서 더욱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보기>는 위글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ㄱ~ㄹ에 해당하는 것은?



선거 기간 동안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의 공표가 유권자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과, 공표 금지가 선거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A] 찬성론자들은 먼저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자 효과’ 등의 이론을 내세워 여론 조사 공표의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킨다. 밴드왜건 효과에 의하면, 선거일 전에 여론 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사표(死票) 방지 심리로 인해 표심이 지지도가 높은 후보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열세자 효과에 따르면, 열세에 있는 후보자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하여 표심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각각의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가 어느 쪽으로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정한 여론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리고 금권, 관권 부정 선거와 선거 운동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든다.

[B]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는 데 전제가 되는 권리인 동시에 국민 주권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사상 및 의견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언론 기관이 ‘공적 위탁 이론’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충족된다.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 등에 관한 여론의 동향 등은 이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언론이 위임받은 알 권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 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리이다. 또 이들은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음도 강조한다.

[A]와 [B]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